

77호, 2008.8

기획_무건리 / 무건리에서 피어오르는 촛불, 그 하나하나에 담긴 사연 / 구성:오미정

기획_무건리 / 미군에게 공여된 무건리 훈련장

서평 / 빅브라더!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 / 심범섭

기고 / 우리나라 언론 방송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방송 장악 배경 / 박석민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국가인권위 권고 깡그리 무시, 폭력연행, 강제지문날인... 이명박 정
권하에서 부시방한 동안 내가 겪은 일들 / 유한경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엄마로부터 나온다. / 이운영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내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이유 / 김미영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은 소중한 일 / 이은직

| 여는 시 |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열자

이 은 영

새나 나무나 벌레나
그 누구도 50년이 지나면
우거진 숲 칩덩굴처럼 뒹굴다
같이 썩어 한 덩어리
푸근푸근 거름이 되는데

하늘아래 사람이라고 태어나
산비탈 감자며 콩이며
너나 가림 없이 나누던 그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발자국소리 숨소리 하나 없이
거기 강물만 흘러흘러 발을 적시고

젖은 내 발을 씻으며
강물이 말하지
더 이상 피 흘리는 아픔이 없게
굳게 손잡아
울렁이는 가슴 끌어내며
단단히 싸워
미친 바람이 물러날 수 있게

평화요, 통일이요,
뭘 어려운 말인가
오십년 넘도록 폭 썩었으니
이제 고운 싹 품어
꽃도 풀도 일으키고
삼천리 천지 사람 사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성큼성큼 앞장서
하얗게 길을 내 달리면
어머니 계신 그 곳
어린 아이처럼 두근대며
귀향하는 거지

그 곳에 가면
촛불에 넘실넘실 춤추며
미선이 효순이가 살아오고
은 밤 내 움츠렸던 꽃 피듯
분홍빛 새 살로 전동록님도 깨어나고
무덤 속 억울한 영혼들 모두
아침 해처럼 환하게 피어날 테니

작은 촛불 점점이 불길을 내어
폭력과 전쟁을 쓸어버리고
그 모든 지배와 착취를 끝장내리니
열자, 평화와 통일의 문이여!
마침내 더 큰 하나로 일어서는
자랑스런 내 조국이여!

2008년 7월 27일

무건리에서 피어난 촛불, 그 하나 하나에 담긴 사연

8월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 오현리 마을에서 고향땅을 지키겠다며 주민들의 촛불이 시작되었다. 평택 대추리의 아픔이 이곳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공대위를 구성하였다. 주민들의 촛불 사연들을 들어보자. -편집자주

● 주병준 주민대책위원장님의 큰 딸 아름양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위원장님의 큰 딸 주아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가 방학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보니 아빠와 엄마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마을 일에 너무 바쁘시고, 엄마는 엄마대로 집안 일에 너무 바쁘신 걸 보니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 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는길에 집집마다 걸려 있는 깃발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에 투쟁을 위한 현수막이 걸려 있고, 주민들은 하루 하루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인심 좋고 살기 좋았던 동네가 지금은 서로 눈치보며 서로의 거동을 살핍니다. 또한 국방부는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다른 것도 아닌 훈련장 부지 확보를 위해 강제 수용도 마다 않고 우리들의 오랜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저도 제 고향이 없어진다고 하니 마음이 아픈데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플까요. 저희들도 훈련장이 확장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훈련장이 확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어른들께서 이 마을을 꼭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 홍기호 이장님의 큰 딸 석진양

“제가 이 마을에서 스물 두해를 살았는데 공기도 맑고, 물도 맑아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을 알지 못해요. 이곳에 훈련장이 확장된다고 하면 제 주위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해요. 동생들과도 추억이 많은데 정말 이곳에서 나가고 싶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 둘째 딸 석선양 _ “(촛불 3일째에) 작심 3일이라고 했는데 벌써 3일이 지났어요. 방학내내 촛불문화제에 참석할 거예요.”

| 셋째 딸 석란양 _ “사랑하는 가족들과 추억들이 있는 이곳에 언제까지나 계속 살고 싶어요. (작은 주먹을 불끈 쥐며) 그래서 꼭 싸워서 이겨야 해요”

● 심문기 오현지킴이 회장님

“이런 늦은 밤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잠도 못 주무시고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방부가 우리 땅을 빼앗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지요. 국방부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보고 나가라고 한다지만, 56번 국도가 확장되고 고속도로가 개통되는데 그 위로 포를 쏘면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생명은 어찌되는 것입니까? 이게 또 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요즘 우리가 열심히 싸우니까 탱크도 전보다 덜 다니

고, 훈련도 덜 하는 것 같아요. 국방부도 이제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 같으니까 아름다운 우리 마을을 꼭 지켜 내자구요”

● 주민 전창준씨

“(2년 전에 도로를 막무가내로 막은 미군에 항의하자 미군이 탄창이 장착된 총을 겨눴던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당시 총을 겨누는 미군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고 했더니, 미군도 아닌 한국 경찰이 주민들을 막아 나섰어요. 도대체 국민을 지켜주는 경찰인지 미군을 지켜주는 경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열심히 싸워 미군이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도록 합시다.”

| 아들 기현군 _ “제가 아직 어리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군사훈련장을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TV에서는 재밌는 거 할 시간인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줘서 너무 고맙구요.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 꼭 이겨서 마을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 딸 혜림양 _ “2년 전쯤에 몸이 많이 아팠는데 이곳의 좋은 공기와 맑은 물 덕에 빨리 나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이곳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오현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곳에 오래 사신 어른들 못지않아요. 끝까지 싸워서 우리 마을 꼭 지켜 낼 거예요”

● 주민 김종율씨

“이렇게 촛불문화제를 열어 고향을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이 고향은 아니지만 한 10여년 이곳에서 살다보니 제 2의 고향이 되었어요. 공기 좋고 물 맑은 이곳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오현리 주민이자 지킴이 회원인 이상훈님

“17대를 살아온 고향을 버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서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이 고향을 지킬 것입니다.”

● 평택 대추리 신종원 이장님

“첫 번째 촛불에 오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간에 대추리 싸움을 주도 했던 지도부가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헛소문이 떠돌고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현재 44가구가 빌라를 빌려 사는 신세입니다. 저들이 하는 폐임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뼈를 이곳에 묻는다는 생각으로 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평택 농민회 이근량님

“싸움이 커질수록 저들의 음해와 분열공작은 더 심해질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푹푹 뭉쳐 싸워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작은 힘이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 오현리 주민 김태정님

“대구에서 시집을 왔지만 이곳이 너무 좋아요. 이 좋은 곳을 두고 다른 곳으로 쫓겨 날 수는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오현리 주민 이영환님

“제가 15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 봐서 아는데요. 타지에 나가게 되면 참 많이 힘듭니다. 자신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그런 설움을 당하게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마을을 꼭 지키고 싶어요.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고향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이형우 지킴이 회원의 딸 이미연 양

“중학교부터 의정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주말에야 집에 오는데 이제야 오현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느끼고 있어요. 촛불문화제가 며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지킬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오현리 부녀회장 서경자님

“오늘 부녀회 모임이 있었는데 부녀회에서 훈련장 확장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 혼자라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촛불 집회에 나오니 내 편이 든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뿌듯합니다. 저는 외지 사람인데도 이 마을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이 곳이 고향인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내가 타지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다정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도 고향을 버리고 타지로 나가면 참 외롭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최근에 이곳을 지키려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끝까지 이곳을 지키고 싶어요”

● 직천초등학교 도자기나라 양찬모님

“올해로 이곳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처음에 왔을 때 학교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곳을 도자기 체험장으로 꾸미면서 이곳에 뿌를 묻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지 사람이라 텃세를 부릴만도 한데 이곳 오현리 사람들은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도자기 나라가 잘 되도록 격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부고장을 돌려준 일이 너무나 고마워 서울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했었죠. 그 덕분에 도자기 나라는 경기북부에서 가장 큰 도자기 체험장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꼭 지켜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싸움은 오래해야 할 싸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싸워 반드시 승리했으면 합니다.”

● 마을의 유일한 가게이자 컴퓨터인 과주휴게소 사장 이종구님

“옛날엔 뼈라를 주워가면 상금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에 놀러도 가고 공장도 지어 함께 물건도 만들고, 열차를 타면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갈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훈련장을 확장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곳은 북한이 바로 지적인데 이런 곳에 훈련장을 확장한다고 하면 북쪽 사람들이 통일을 하려 하겠어요? 요즘 이곳을 나가서 살 생각을 하면 골치가 아프고 잠이 안와요. 타지 사람들도 물 맑고, 산 좋아 찾아오는 이 곳을 왜 없애려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미군에게 공여된 무건리 훈련장

한겨레에 지상논쟁이 벌어졌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이 미군때문이라고 했더니 무건리 훈련장 권역화 사업단장 1군단 소속 오세일 중령은 “(무건리 훈련장이) 단순히 미군이 장소를 빌려 간혹 훈련하고 주로 우리 군이 사용하는 훈련장”이라며 이를 미군 훈련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미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나라당 황진하의원(과주)도 가세했다. 주민들이 촛불을 든 직후인 8월 5일 “우리 군이 훈련할 훈련장을 가지고 왜 미군 운운하며 반미를 부추기는가”라며 주민 촛불에 참여한 단체들을 엄정 대처하라고 공안기관에 주문한 것이다.

이 글은 평통사 무건리대책반에서 발행한 무건리 자료집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무건리 훈련장의 실체를 확인해 보자 - 편집자주

■ 무건리 훈련장의 성격은

개성-문산-서울 축선에 위치한 무건리 훈련장

유사시 북한의 3대 공격로는 ▲ 개성-문산-서울(개성-문산 축선)▲ 철원-동두천-의정부-서울(철원 축선) ▲ 동해안(동해안 축선)을 들 수 있다. 이 중 무건리 훈련장이 위치한 개성-문산 축선은 북한군의 최단 서울 공격로이기도 하지만 한미연합군의 대북 선제공격과 군사분계선 돌파, 개성, 평양 점령을 위한 최단 공격로로도 될 수 있다.

무건리 훈련장은 인근의 미군 전용훈련장인 스토리 훈련장과 다그마노스 훈련장이 연계되어 임진강 도하, 휴전선 돌파, 개성 진격을 상정한 포 사격 훈련과 기갑 기동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병 협동훈련장이다.

썰스토리 사격장(215만 평, 과주 파평면, 진동면 일대) : 주한미군의 핵심 실사격 훈련장으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괌, 오키나와 등 해외주둔 미군이 실사격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썰다그마노스 훈련장(175만 평, 과주 적성면) : 미 2사단 기갑부대의 전차훈련, 도하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토리 사격장과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음.

현재도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연대급 훈련을 할 수 있는 대규모 훈련장이지만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되면 현 여단 작전범위(7×15Km)를 넘어서는 포 사격과 대규모 기갑 기동훈련이 가능해짐.

1980년 대대급 종합훈련장으로 조성된 이래 1986년, 1990년에 걸쳐 훈련장이 확장되어 현재 수도권 지역 200여 개 부대가 사용하는 유일한 연대급 제병 협동훈련장이다.

따라서 현재의 확장 계획대로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남북 길이 약 18Km, 폭 5Km)하게 되면 현재 약 4Km 정도인 포 사격 훈련 거리가 대폭 연장되어 사거리 18Km의 K-55와 같

은 야포의 실 사거리 훈련이 가능해진다.

전차의 기동훈련 지역을 확대하고 포 사격 훈련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은 대북 선제·중심 타격을 겨냥한 새로운 한미 연합 군사교리와 작전계획 및 무기체계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훈련장 확장은 바로 이러한 교리와 작전, 전술 및 무기체계의 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 군사적 대립을 한층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주한미군에게 보다 큰 규모의 훈련장을 공여해 주기 위한 것으로, 무건리 훈련장은 한미 공동 훈련장임.

미군은 무건리 훈련장을 트윈 브릿지로 부른다. 무건리 훈련장은 국방부가 연중 180일 사용하는데 그 중 91일(13주)을 주한미군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한국군보다 주한미군이 더 많이 사용한다. 더구나 무건리 훈련장은 매향리 국제폭격장처럼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스트라이커 여단과 주일미군, 호주 등 해외주둔 미군까지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 성격의 훈련장이다.

그런데 1996년 권역화 훈련장(총 1,050만평)으로 확장 계획을 수립한 직후인 1997년 11월에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데 이어,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에게 재차 공여됨으로써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보다 큰 규모의 훈련장을 원하는 미군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 훈련장을 공동 사용하는 이유는 전용 훈련장 사용에 따른 비용과 민원 등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것임.

무건리 훈련장 등 한미 공동 훈련장들의 관리 책임과 유지비용은 한국군이 부담하고 있다. 한국군 훈련장을 미군에게 공여하여 한미 양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시설관리와 개조, 훈련장 접근 도로 보수와 기반시설 정비, 훈련장 오염 정화, 확장부지 매입 등의 비용을 한국군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미군은 자신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오염, 소음 등 환경피해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에 따른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라 무건리 훈련장을 (주한)미군에게 공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한미 공동 훈련장 유지비용을 한국군에게 부담지우는 것도 불법임.

무건리 훈련장은 다른 36개 한국군 훈련장과 함께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에 의거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으나 연합토지관리계획이 근거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소파에는 한국군 훈련장을 주한미군에게 공여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해 무건리 훈련장을 미군에게 공여해 주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적인 미군 공여를 위한 훈련장 확장 역시 불법이다.

또한 LPP 협정에 의해 공여된 한미 공용 훈련장은 주한미군만 사용하도록 규정(LPP 협정 부록 나 4.)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나 해외 주둔 미군이 사용하는 것은 LPP 협정을 위배한 것으로 불법이다.

또한 한미 공동 훈련장의 유지비용을 한국군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현행 한미소파 5조 1항에 위배된다.

또한 한국군 훈련장과 그 시설을 주한미군과 미 본토 미군, 해외 미군들이 한반도 역외 작전 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2조(발동 요건), 3조(적용 범위)을 위배한 불법이다.

?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과 오산 2개의 허브기지로 재배치할 목적 하에 2002년에 한미 당국사이에 맺어졌고 2004년에 개정된 협정. 그 핵심 내용은 서울 이북의 미 2사단을 북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난 평택으로 재배치하는 것임. 이와 같은 내용의 LPP 협정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체계 조정 요구에 의해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이전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굴욕적 협정임.

■ 국방부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의도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미군에게 보다 넓은 훈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

2006년 6월 27일, 국방부 이덕건 대령(1군단 교육훈련 참모)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 이유를 “사거리 확장 및 장비증강 대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한미 공동 훈련장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무건리 훈련장 확장 이유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한미 공동 훈련장 공여에서 찾고 있는 것은 무건리 훈련장이 바로 (주한)미군의 요구에 따라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면서 평택·오산을 중심으로 공격형 전투기지를, 대구·부산을 중심으로 병참기지를 건설하여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의 집중화·효율화·기동화를 꾀하는 한편 이러한 군사력의 운용을 고도화하기 위해 훈련장의 확장과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는 이유도 이러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군사력 운용의 고도화에 따른 것이다. 무건리 훈련장이 국방부의 계획대로 확장되면 주한미군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미군 전용 훈련장인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보다 2.5배나 큰 규모의 훈련장을 확보하게 된다.(철원-동두천-의정부 축선에 위치한 다락대(세인트 바바라) 한미 공동 훈련장은 무려 2,676만 평에 이룸.)

미군은 또한 훈련장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훈련을 통한 미군 군사력 운용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파주 스토리 사격장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 체결 직후에 전차 사격장, 기관총 사격장, M203 유탄 발사기 사격장, 중대 실탄 연습장, 도시 기습 코스 훈련장 등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도 다목적 종합 사격장(MPRC)의 시설을 개조하여 미 2사단 헬리콥터, 브래들리 전차, M1 에이브람스 탱크, 야포, 박격포, 항공근접 지원 훈련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다.

이렇듯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주한미군과 해외미군에게 보다 넓고 현대화 된 훈련장을 제공함으로써 재배치된 주한미군과 해외미군의 신속기동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여 대북

선제·중심 공격과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란?

-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되어 온 주한미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함. 즉 주한미군을 그동안 대북 방어를 위해 남한에 고정 배치된 ‘불박이 군’에서 미국의 필요에 따라 양안분쟁에 투입하거나 이라크 전쟁에 차출하는 등 전 세계 어디로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만들겠다는 의미.
- ‘(신속)기동군’으로 변환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거점 삼아 양안 분쟁을 비롯한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경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국가 안보도 위협받게 됨.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 주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제2조,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과 적용범위(제3조 지리적 적용범위)를 위배한 불법이며 우리 헌법 5조(침략전쟁 부인)에도 위배되는 것임.

한국군의 대북 선제·중심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국방개혁 2020’(국방부 발행)에 따르면 한국군의 대북선제·중심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각 제대를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사거리와 파괴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 각 제대의 작전지역을 현재보다 4배로 확장하고, 기계화여단 확대(20개에서 26개로), 포 사거리 확장 및 장비증강, 공세적 전투수행교리의 채택 등 대북 선제타격 능력과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군 구조와 무기체계를 재편·강화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로서 한국군 작전지역을 미군의 그것과 필적하게 하여 한미 공동작전 수행을 한층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은 바로 이와 같은 한국군의 작전지역 확대에 따른 보다 넓은 훈련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대북 선제·중심 타격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미국(한미연합사)의 군사전략과 교리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가 김명자 의원에 제출한 자료(2006년 7월)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유를 “부대구조, 무기체계 발달 / 전투수행 교리 발전으로 실전적인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훈련장 확장”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주된 이유가 군사교리와 작전 및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른 것임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 무건리 훈련장 확장 왜 문제인가?

주민 생명 위협과 생존권 박탈

국민의 생존권은 국가가 지켜야 할 제 1의 가치이고, 군과 국방부의 기본책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현리 주민들은 훈련장 설치 이후 온갖 피해와 고통을 겪어 오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 고통을 감내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방부는 피해보상은 커녕 또 다시 훈련장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로 축산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주민들이 노령화로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밀려나게 되면 주민들의 생존권은 사실상 벼랑 끝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위험천만, 제 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56번 도로를 관통하는 포사격훈련

정부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제 2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되면 파주~동두천 간 고속도로가 훈련장을 가로지르게 된다. 또한 파주와 양주를 잇는 56번 도로(차량 통행이 많음)의 직선화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도로 또한 무건리 훈련장을 가로 지르게 된다.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되면 훈련장 남쪽에서 북쪽으로 원거리 포 사격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하루 수 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게 될 제 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56번 도로를 가로질러 포사격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만일 오폭이라도 난다면 대형 인명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백로와 물푸레나무 등 천연기념물의 훼손과 확장 지역의 환경 파괴는 자명한 이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정 지역은 백로와 물푸레나무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지금도 이미 군 훈련으로 백로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고, 물푸레나무는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데, 훈련장이 확장된다면 이들 천연기념물들은 더 이상 생존이 어렵게 될 것이다.

백로와 물푸레나무 이외에도 이 지역에는 우리가 반드시 보존해나가야 할 소중한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수백만 평에 달하는 산천과 논밭이 전차 궤도와 포탄에 파괴되어 황폐화되어 갈 것이며 이에 따른 환경 파괴의 심각성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한반도 평화에 역행

군사분계선 바로 턱 밑에서 사거리가 연장된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공세적인 도하 기동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남북 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무건리 훈련장은 특히 전차 전용훈련장으로서 전차가 대북 선제공격과 휴전선 돌파의 선봉 임무를 맡게 된다는 점에서 훈련장 확장은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한층 첨예화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게 된다. 또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미군의 대북 선제·중심 타격 능력과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행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미군에게 제공되는 만큼, 이는 북미관계 개선과 세계평화 증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파주경제특구 건설을 북한에 제안했듯이, 파주는 도로와 철도로 남북을 잇고, 사람과 물자가 넘나드는 평화와 통일의 관문으로 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러나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할 파주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임무를 부정하고 파주를 전쟁수행을 위한 최일선 지역으로 계속 붙들어 매 두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건리 훈련장의 확대는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함께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크나큰 위협이며 통일의 장애물이다.

■ 한국군 훈련장이 부족하여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한다는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한국군(육군)은 이미 약 1억 3,000만 평의 훈련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90만 평, 거주지·상업지구)의 약 144 배, 서울 면적의 약 70%를 넘는 광활한 땅이다. 이렇게 광대한 면적의 훈련장을 보유하고서도 소요 면적(약 2억 142만 평, 서울시 면적의 약 1.1배)의 40~50%가 부족하다고 불멘소리를 한다. 이는 물론 국방부가 스스로 산정한 훈련장 소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주장하는 2억 만 평을 상회하는 엄청난 규모의 훈련장 소요는 대북 공세적인 성격으로의 군사교리 및 전략과 작전의 변화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타격능력을 갖는 무기체계의 도입에 따른 것이어서 우선 이러한 교리와 작전, 무기체계의 도입이 과연 정당한가가 문제로 된다.

국방부는 육군 훈련의 현대화와 효율화를 명분으로 1995년 훈련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1983년 한미연합사(주한미군)의 공지전 교리 도입에 이어 1994년 한국군이 중심작전 교리를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지전과 중심작전은 적(북한)의 중심을 공격하는 적지 결전의, 그 이전에 한미 양국군이 채택했던 그 어떤 교리보다도 극단적인 대북 공세적 교리다. 공세적 교리가 방어적 교리보다 남북 군사적 대립을 더욱 첨예화하게 되며, 전쟁에 따른 피해도 가공할 수준이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공세적 교리와 작전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시대정신에 비춰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이러한 중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갖는 무기체계들을 도입해야 하는데, 육군의 에이태컴스, MLRS(다연장로켓), 공군의 F-15K, 해군의 KDX-3 등이 그 대표적 무기체계다. 이러한 무기체계들의 실전적 훈련을 위해서 기존 훈련장을 수배로 확장하는 것이 육군의 훈련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인 것이다. MLRS 훈련장인 다락대 훈련장은 그 소요 면적이 무려 약 2,700만 평(여의도 면적의 약 30배)에 이르며, K-55의 실전적 훈련 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한 무건리 훈련장도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이른다. 그러나 무기체계는 교리와 전략 및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리와 작전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면 이를 수행할 무기체계의 도입도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렇듯 국방부가 주장하는 훈련장의 부족은 공세적 교리와 작전, 무기체계의 도입에 따른 실전적인 훈련장을 확보해 주기 위한 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교리와 작전, 무기체계의 도입이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훈련장 확장도 정당성을 결여하게 되며, 따라서 국방부가 제시하는 훈련장 소요 면적도, 이에 따른 부족 면적도 모두 그 산정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무기체계의 실전적 훈련 여건 확보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군 중심의 이기주의적 주장이자 비현실적인 자의적인 주장이다. 국토의 협소한 여건과 지역 개발의 확대 등의 현실적 조건과 무기체계의 고성능화에 따른 사거리 연장 등을 감안할 때 애초부터 실전적 훈련이 가능한 훈련장 확보란 주민 거주지역을 침해하지 않은 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국방부의 태도에서 현실 무시와 주민 경시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실전적 여건이라는 것도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한국군이 기존 훈련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통폐합하며(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파괴가 없는 전제 하에),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이미 확보한 훈련장만으로도 얼마든지 차질이 없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은 주한미군에게 공여해 준 한국군 훈련장의 면적과 일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한국군 훈련장이 부족하여 무건리 훈련장 등 한국군 훈련장을 확장해야 한다면서 한국군 훈련장을 미군에게 공여해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통해 한국은 주한미군으로부터 4(3)개 지역, 11개 훈련장 3,949만 평을 반환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대가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라 37개 한국군 훈련장—이 중 육군만 최소 29개, 5,736만 평 이상(확장 예정 면적 포함)—을 한미 공동 훈련장으로 다시 주한미군에게 공여해 주었다(국방부, 임종인의원실 제출 자료, 2005년). 즉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은 훈련장보다 무려 약 1,800만 평이나 더 많은 면적을 공여해 준 것이며, 이는 무건리 훈련장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한미 공동 훈련장으로 공여해 준 훈련장 중에서 규모가 큰 다락대 훈련장(2,676만 평), 무건리 훈련장(1,100만 평) 등은 미군 사용기간이 연간 13주로 한국군보다 더 많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훈련장이 태부족하다면서 미군에게 막대한 규모의 훈련장을 공여해 준 한국 당국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으며, 만약 한국군 훈련장 부족이 사실이라면 미군에게 훈련장을 공여하지 않거나, 공여하더라도 면적과 사용 기간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도 훈련을 해야 하며, 따라서 훈련장을 공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그 전력(주둔 병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훈련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장이 부족(?)하다는 한국군으로서의 훈련장을 미군에게 공여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미 공동 훈련장 말고도 전용 훈련장으로 이미 1,000만 평 이상의 전용 훈련장을 한국으로부터 공여받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필승 사격장(약 1,800만 평)과 같이 주한 미 공군이 사용하는 공군 훈련장은 제외되어 있다. 주한 미 2사단 병력이 약 12,000명이라면 1인당 약 800평 이상의 전용훈련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1인당 약 230평을 사용하는 한국 육군의 3.5배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향후 훈련장 소요 면적도 현재의 2배에 못 미치는 규모임에 비추어 볼 때 주한미군은 전용 훈련장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훈련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무려 5,736만평(육군만, 국방부, 임종인의원실 제출 자료, 2005년)에 달하는 한미 공동 훈련장까지 확보하고 있어 주한 미 육군 1인이 사용하는 훈련장은 무려 5,613평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주한미군에게는 한국군에 비해 지나치게 큰 면적이 훈련장으로 공여되어 있는 바, 이러한 큰 규모의 공여는 주한미군은 물론 미 본토 미군이나 해외 주둔 미군에게 까지 훈련장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군 훈련장 부족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주민들의 땅을 빼앗기 전에, 미군 전용 훈련장은 놔두더라도, 한미 공동 훈련장의 공여를 중단하거나 적어도 그 공여 면적과 사용 기간을 최소화하는 과정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

? 무건리 훈련장 설치 및 확장 경과

- 1980년 8월, 무건리 일대에 350만 평 규모의 대대 종합훈련장 설치.
- 1986년 3월, 550만 평 규모의 연대 전투단 훈련장으로 확장.
- 1990년 8월, 제병 협동훈련장으로 확장.
- 1996년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비암리 훈련장, 노야산 훈련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권역화 훈련장(총 1,050만평) 계획을 수립.

- 국방부의 권역화 훈련장 계획에 따라 과주 오현리·직천리·갈곡리, 양주 비암리 일대가 훈련장 확장 부지로 편입됨.
- 1997년 11월, 무건리 훈련장을 미군의 대규모 기동훈련과 비실탄 사격 훈련을 위해 연간 13주(91일) 동안 주한미군에게 공여해 줌으로써 한미 공동훈련장으로 됨.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 합동위원회 시설 및 구역 분과위원회 건의안-과제 번호 3089(1997. 11. 10)]
- 2004년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에 의해 무건리 훈련장이 주한미군에게 재차 공여됨.
- 2006년 현재, 국방부는 기존 부지를 포함하여 총 703만 평을 매수.
- 2007년,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부지 매입을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특별회계를 편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함. [1979~2006년 1,004억 원, 2007년 275억 원, 2008년 960억 원, 2009년(계획) 1,385억 원] 또한 훈련장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이른바 ‘민관군 협의체’를 만들어 확장 사업을 서두름.
- 2007년 11월 12일, 확장 부지의 일부인 직천리, 무건리 일대 370만 평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인 국방부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함. (국방부 고시 제2007-44호).
- 2008년 5월 9일, 국방부는 오현리 일대에 대해 강제수용절차를 밟기 위한 ‘보상계획’을 공고함.
- 2008년 7월 10일, 국방부는 ‘보상계획’ 공고에도 주민들이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자 2차 ‘보상계획’을 공고함.

| 캠페인 | 숨겨진 돈을 찾아라 5탄

간관은 한국군 훈련장, 사용자는 미군?!

국방부에서 주관한 주민설명회에서 밝히듯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거,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미군 훈련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 1997년부터 이미 미군이 훈련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계속 둘러댄다.

“한국군이 사용할 훈련장이 부족해서 그런거예요”라고... 게다가 파주시 국회의원은 한술 더 뜬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오현리 주민들도 다 안다. “전경들이 동네에 나타나면 미군이 훈련 하러 들어오는 거야~”

무건리 훈련장확장을 위해 책정된 2008년 국방예산은 960억원이다.

하룻밤 자고 나면 뛰는 물가에 놀란 가슴 진정 시킬 틈이 없는 요즘. 제일 만만했던 라면도 이젠 너무나 비싸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명목의 2008년 국방 예산 960억원이면 중저소득층 약 940만 가구에 라면 한 박스씩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아니면 라면 2억개를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하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간식으로 주던가...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미국과 합의된 사항입니다.

-주민 설명회 1군단 설명-

거참,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한국군 훈련장이라니까!

-국방부 입장-

한국군 훈련장을 미군 운용하며 반미를 부추기는 촛불데모를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 소속 황진하

파주시 국회의원-

| 자료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 북핵 및 북한 관련 문제,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방안 등을 의제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6자회담 2단계 조치의 전면적, 균형적 이행과 3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적 내용을 합의한 지난 7월 12일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과 8월 11로 예정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완전 해제를 앞두고 개최되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6자회담 3단계에서 논의될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반도 평화협정, 동북아 다자안보 등에 대한 한층 진전된 내용을 합의해 넘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국익에 기여하는 회담으로 됐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재확인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 인권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힘을 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여 동북아 평화 정세에 역행하고 말았다.

첫째,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기본적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1세기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의 기본적 임무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전제들 즉 “한미연합 방위력 강화, 작전통제권 전환,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대한 합의의 지속적 이행”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전략적 유연성)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안들이다. 한미연합 방위력 강화는 이른바 ‘상호 운용성’을 구실로 한반도 역/내외 작전 수행을 위한 미국산 첨단 공격무기 도입 확대로, 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 방위에 대한 주한미군의 책임과 부담을 최소화하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핵심 권한은 미국이 장악하는 방식으로,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대한 합의의 지속적 이행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기지 이전비용의 한국 측 부담을 정당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 구조 즉, 포괄적이고 전세계적인 범위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기로 한 합의는 2005년 11월, 노무현-부시 대통령 간의 경주선언과 2006년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기존 한미동맹의 대북 공세적 성격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으로 한반도 역외로까지 그 침략적 성격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한미 FTA 의회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도 한미 FTA가 침략적 한미동맹의 토

대로, 한국의 경제주권의 해체와 미국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으므로 우리 민중은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둘째, 이번 공동성명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6자 수석대표회담 합의 내용을 재확인 하는데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3단계에서의 북한의 의무사항인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적시해서 강조하고 있는 반면, 6자회담 진전의 관건인 미국 측 의무사항인 대북 적대정책 철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처음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연계시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미국이 반미적 성향의 정권을 붕괴시키는 수단으로 인권 공세를 취해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합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체제변환을 노린 미국의 대북 인권공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번 공동선언은 6자 회담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양 정상이 “북핵 문제의 소속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합의”는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양 정상은 ‘포괄적 협력’이라는 명목 하에 이라크, 아프간 등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동참을 지지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와 위협에 공동대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은 미국의 관점과 시각에 입각한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로 미국이 자국의 패권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명분이자 구실이다. 따라서 ‘지역적,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한국이 전면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합의는 ‘평화와 재건’을 구실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연장 및 아프간 경찰 파견 및 민간재건팀(PRT)의 파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주과학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에서 MD체계 구축을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것이 최근 우리 공군이 MD 및 우주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3단계 우주전력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한결같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며 우리 민족과 민중,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6자회담 정세 발전에 발맞추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8년 8월 6일.)

| 평화협정 실현운동-1단계 결산 |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2단계 운동 출발합니다
 - 1단계 운동 결과 추진위원 2,563명, 길잡이 9,762명 -

회원팀장 박석분

조직주체	추진위원(명)	길잡이(명)
중앙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 포함)	350	178
서울	554	2,008
부천	181	294
인천	504	3,173
경기남부	85	(27)
대전충남	214	434
전북	60	(174)
군산	153	131
전주	-	167
광주전남	360	1,657
안동	68	(299)
대구	24	1,204
해외	10	16
계	2,563	9,762

※()부분은 취합된 길잡이 명단과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예상보다 더디게 진전된 평화협정 정세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쇄고기 정국의 파고를 넘으며 즐기차게 전개된 1단계 운동이 지난 7월 27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월 24일 선포식을 신호탄으로 삼고 전개된 1단계 평화협정 실현운동에서 평통사는 추진위원 2,563명, 길잡이 9,762명을 조직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이나 진보연대에서 조직한 추진위원을 제외한 것이며 민주노총과 진보연대가 조직한 추진위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24 선포식(명)	1004인 선언(명)	계(명)
민주노총	75	149	224
진보연대	90	-	90
계	165	149	314

애초 7월 27일까지 추진위원 1만명, 길잡이 10만명을 목표로 뛰어보자던 결의는 2008년 내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는 정세 인식 속에서 '진보진영과 함께 이룰' 최고의 목표치로 설정된 것입니다.

평통사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통해 평통사 및 진보진영을 혁신하고 민족자주운동이 단결할 수 있게 해보자는 의지를 담아 1만 추진위원, 10만 길잡이 조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같은 목표는 정세의 요구 및 우리의 지향과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진보진영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평통사만의 힘으로 내외의 어려움 속에서 추진위원 2,560여명과 길잡이 9,760여명을 세워낸 성과는 중앙과 지역의 일꾼들과 열성회원, 열성추진위원들이 헌신적으로 조직사업을 전개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저변에 형성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2단계 운동에서는 전 회원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나설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1단계보다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27 한파당에 650여명이 참가하여 1단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마무리하고 2단계 운동을 힘차게 결의한 일은 7·27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새겨주었습니다. 진보연대와 민주노총은 7·27을 공동으로 치르자던 약속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각기 150명,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각 7·27 행사를 치렀습니다.

8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개되는 2단계 평화협정 실현운동은 지난 7월 12일 6자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를 마무리하고 3단계 조치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기간동안 전개됩니다. 지난 7월, 6자회담에서 관련 당사국들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를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도 미국은 8월 11일로 예정된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체조치를 연기하는 등 6자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노정을 더디게 하거나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미국을 비롯한 관련 나라들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3단계 조치를 위한 합의를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한반도 평화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우리는 6자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한반도 평화포럼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해야 합니다.

1단계 운동 과정에서 네 차례의 신문광고를 통해 우리의 주장을 알렸던 것과 같이 2단계 운동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요구를 대대적으로 널리 알려낼 것입니다.

특히 2단계 운동은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합법적인 지배를 보장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공동성명 발표일인 8월 8일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일인 11월 18일까지 전개됩니다.

1953년 8월 8일 이승만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되면 작전지휘권이 환수될 것을 염려해 정전이전부터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전 직후 덜레스 국무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한국군을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지휘 하에 두기로 이승만과 합의하고 이를 한미상호방위조약 공동성명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한미 양국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식을 치렀지만 미국은 이승만을 완전히 제압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나서야 조약을 발효시켰습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공동성명 발표 후 1년이 훨씬 지난 54년 11월 18일, 작전통제권을 비롯한 남한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배고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한미합의의사록 체결 다음 날에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발효했습니다.

이처럼 2단계 운동이 시작되는 8월 8일과 마무리되는 11월 18일은 당시 미국이 한국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합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이승만 정부를 협박하는 등 혈안이 되어있던 시기를 상징합니다.

이에 2단계 운동기간 동안 한미동맹의 족쇄를 끊어내고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의의를 더욱 더 깊이 새기며 활동에 나섭시다! 2단계 운동에서는 1단계 운동에서 적극성을 내지 못한 회원과 추진위원들이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주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와 회원들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단계 운동의 목표는 여전히, 1단계 운동기간에 달성하지 못한 1만 추진위원, 10만 길잡이, 1천 회원 모집에 둥니다. 2단계 운동에서 1단계보다 더 큰 성과를 내어 내년부터는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기구를 결성하여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2단계 운동, 출발합니다!

빅브라더!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소설 '1984년' 조지 오웰」

문화사랑방 인서점 심범섭

문명을 창조하는 강력한 엔진 신자유주의, 그러나 이 엔진을 장착한 자본주의 열차가 그 '궤도'의 끝에서 '경제제국주의'라는 '전체주의'와 만날 수밖에 없음을 부정하는 이는 이제 없다. 이런 사건마다 씨씨티브이와 전자결제 그리고 손전화가 온갖 범죄의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로 등장하는 현실이 말하듯 우리의 일상은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가 59년의 세월을 거쳐 정치적 공간을 타 넘어 문명이라는 첨단장비에 의해 경제적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소설 '1984년'의 소름 끼치는 전을 앞에 다시 서 보자. 그리고 '시장의 악마'를 붙들어 맬 궁리를 해야 한다. 악마는 역사의 주인공만은 아니다. 방목의 책임은 우리의 몫이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소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섬뜩한 1984년의 빅브라더의 연설 한 대목,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가.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다니... '1984년'의 언론담당 윈스턴은 이 말을 따라 과거를 현재에 맞추는 작업을 한다. 뉴욕타임스 등 모든 미디어와 도서의 기록을 찾아 새로운 원본, 그렇다! 새로운 원본을 만든다. 수정기록은 없다. 따라서 빅브라더의 언행은 언제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치한다.

그러나 빅브라더조차도 인간의 양심을 영원히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윈스턴은 저항집단과 접촉하게 되고 이것이 발각되어 애정성 고문실 101호실로 끌려가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되어 '완치된 자'란 판정을 받고 석방된다. 이를 오웰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애정성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용서 받고 그 영혼이 눈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도 보자. "모든 것은 잘 되었다. 싸움이 끝난 것이다.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라고, 빅브라더를 사랑하다니... 오! 신이시여!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실이 문제다. 그렇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개조하려는 사회공학이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 안개처럼 퍼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개조하자며 강부자로 출발한 우리의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을 위한 시도에 이어 임시정부 삭제 그리고 체포현상금, 물대포색소, 금서목록 등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인간개조의 작업에 나섰다.

두렵다. 언뜻, 토마스 매티슨이 말한 '시놉티콘'이 생각난다.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펜옵티콘. 그러나 만약 다수가 그 소수의 권력을 감시한다면.....' 그렇다. 촛불문화제가 말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폐쇄회로티브이, 전자결제, 핸드폰, 인터넷,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이것은 빅브라더의 것이기에 앞서 우리의 눈과 귀가 삶의 족적이 아닌가. 우리가 ‘빅브라더’를 팬옵티콘의 말뚝에 매어 민주주의의 마당에 방목하자.

쩨77호부터 ‘문화’코너가 신설되어 문화예술분야의 글이 번갈아 실릴 예정입니다.

이번호에는 문화사랑방 인서집을 운영하는 심범섭 님의 서평을 신습니다. -편집자주

| 기고 |

우리나라 언론 방송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방송 장악 배경

민주노총 사무국장 박석민

이명박은 자신의 선거참모를 낙하산으로 YTN 사장에 앉히는 한편, 검찰·방통위원회·감사원 등 국가기구를 총동원해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였다.

최근 이명박의 언론장악 시도를 보면서 독일 나치시대 선전장관을 지낸 괴벨스가 생각한다. 대중을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지배한다고 생각한 그는 대중 지배를 위해 전 국민에게 라디오를 공급, 나치당의 정당함을 세뇌시켰다. 그리고 1935년 세계 최초로 정기적인 TV방송을 시작해 99%의 거짓과 1%의 진실을 적절히 배합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로 대중을 장악했다. 방송을 자신의 선전수단으로 삼기 위해 장악했던 5공 전두환처럼, 이명박은 집권 초반부터 10%대 지지율에서 헤매는 이유가 언론과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했나보다. 때문에 지금의 이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언론과 방송 장악에 정권의 사활적 이해를 걸고 나선 것으로, 이 정부는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보장하던 인터넷 언론마저 통제하겠다고 한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과 정부 출범으로 대다수의 대중들이 등을 돌리고, 한미동맹 복원을 내세우며 체결한 굴욕적이고 종속적인 쇄고기협정 때문에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무능을 공안정국 조성을 통한 폭정으로 돌파하기로 작심한 것이다.

자신이 서명해 임명할 수 있는 인원이 7천명이나 되는 막강한 권력의 행사를 통해 사회 주요 요직에 ‘꼬마 이명박’을 심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작업으로 방송장악이라는 폭정을 택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와 오만한 행태는 이미 많은 언론보도와 관련한 비판 글이 나온 상태이기에 이글에서는 우리나라 언론 방송 현실을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방송 장악의 배경과 우리나라 언론 방송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공영방송이 중심이 되어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그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공영방송은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그 목적도 공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영방송인 KBS1은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를 주재원(主財源)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고를 유치하면,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얽혀 자본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아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기업체가 이윤(利潤)을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방송을 상업방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방송, 전파는 공공재로서 TV 수신기만 있으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3개 지상파 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영방송으로서 KBS2는 KBS1과 달리 광고를 통한 운영으로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전두환이 민영방송이었던 TBC(동양방송)를 언론통폐합하면서 당시 구조가 기형적으로 지속되어 온 경우다.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도 방송장악 음모로 이해되고 있다. 공영방송인 MBC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운영구조를 갖고 있는데, MBC의 지분은 현재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정부)가 70%의 지분을, 정수장학회(2005년까지 박근혜가 이사장)가 30%의 지분(1)을 갖고 있다. MBC는 지역에 19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지역구조의 소유지분은 또 달라서 정부지분이 51% 미만으로, 나머지는 일반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MBC의 운영 역시 상업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MBC의 소유구조나 운영구조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모순된다. 시청료 등 국민부담없이 광고 수입을 통한 운영 방식인 MBC가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권력형 비리 수사에는 미적거리면서 PD수첩에 대해서는 전광석화 같은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볼 때 이명박 정부는 눈엣가시같은 MBC를 압박하고 민영화함으로써 공공적 기능을 약화, 자신의 통치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SBS, OBS 등의 민영방송(지역포함)은 11개의 네트워크로 묶여 있는데, 지역 경제력의 취약한 문제 등으로 지역방송은 방송의 70~75%를 SBS 내용으로 방영하고 나머지 정도만 자체 제작한 내용으로 편성해 운영중이다.

현재 방송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수신율이다. 서울의 경우 직접 수신율이 20~3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유선방송을 다시 가입해야 TV시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부담이 이중적이다. 이는 정부가 안테나 기지 증설 등의 투자를 하지 않아 공영방송의 수신율 높이를 포기한 유선 방송 등의 방송 산업화 정책 때문이다.

케이블 방송들은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를 포함하는 '의무통신제' 등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유료방송시장을 성장시켜왔다. 한편 광고시장은 '코바코'(광고공사)의 공기능에 의해 광고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케이블의 경우 지상파 광고의 1/5~1/10 수준의 광고료를 받는다. 때문에 케이블은 시청률이 3%정도만 되도 지상파의 웬만한 낮은 시청률의 프로그램 정도가 된다. 앞으로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면 지상파 방송들이 의무통신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케이블 방송으로서는 생존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후 방송시장에 통신이 개입하게 되면, 상황은 또 많이 변하게 될 것이다. 통신의 경우 유선도 무선전화도 포화 상태에 이른 조건에서 황금알을 낳던 통신사(KT의 경우 지상파 전체 매출합과 동일할 정도의 규모)들로서는 방송이라는 새로운 콘텐츠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것이 대세라고 할 때 방송과 통신이 결합되면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실어 보내는 조건에서 이미 망이 전국에 깔려 있는 통신과 케이블이 그 영역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향후 KT, SKT, 거대 케이블 연합 등만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조건에서 이미 전국에 망을 깔고 있는 통신과 케이블사들은 현재 조건에서 생길 수익을 나눌테니 지상파의 경우 수신율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말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방송이 공영으로서 국민 기본권임에도 돈내고 이용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전환되고, 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신문시장은 철저하게 ‘돈놓고 돈먹기’식이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3개 신문은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75%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이 가능했던 것은 엄청난 무가지 살포와 경품 제공 등 자금력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최근 몇 년 신문시장에서 고전하는 것은 중앙 조선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자금력이 그 원인이다. 한국일보가 1990년대 초반 공격적 경영을 시도해봤으나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온 중앙일보의 무차별적 물량공세에 밀려 경쟁에서 완전히 탈락해 지금은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조중동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은 아무리 좋은 신문을 만들어도 부수 확장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린 신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바라기는 어렵다.

인쇄 능력 면에서 보면 매일 1,400만부 이상을 발행하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40면(칼라 12면)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조중동과 한국일보 등 4개 신문은 48면(컬러 20면)이상 발행할 수 있는 고속 윤전기를 몇 대씩 갖고 있다. 반면 나머지 신문들의 인쇄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다. 외환위기 이전에 40쪽 신문 10만부를 1년간 찍으려면 잉크가 묻지 않는 종이값만 50억원 가량 소요되었는데, 종이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른바 ‘무가지’를 찍어 신문 확장에 나서고 싶어도 조중동을 제외하곤 감당하기 어렵다. 동아일보가 2002년 현재 종이값만 1,300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발송, 배달 및 부수 확장비용에서도 다른 신문은 조중동을 따라가기 어렵다. 광고시장 뿐 아니라 판매시장도 조중동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문 지국들도 이들을 위주로 배달하고 나머지 신문들은 독자적인 배달망 자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일요일에 신문발행을 하지 않는 조간신문들 중 대부분이 2002년 대선(12월 19일)후 첫 일요일에 신문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조중동이 갑자기 발행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나머지 신문들도 같이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언론은 이미 족벌, 재벌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는 삼성은 글로벌스탠다드를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적 기업으로서 해서는 안 될 온갖 불법, 탈법행위와 약탈적인 시장 장악과 조직적이고 집요한 노동자 탄압까지 태연하고 당당하게 벌이는 집단이다. 그러나 삼성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인척관계인 중앙일보는 물론이러니와 조선 동아까지도 삼성을 비호하고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을 위축시켜선 안된다.”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데 여념이 없다. 삼성그룹은 국내 언론사의 최대 광고주다.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편집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광고주와 재벌인 것으로 확인된 지 오래다.

<한국과 미국의 주도세력 비교>

구분	미국	한국
명칭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수구반동복합체 (Military-Industrial Complex) (守舊反動複合體)
구성	군부+ 군수산업체+ 정책당국자	한나라당+ 조중동 (배후세력 : 미국, NeoCon)

폐해 외교, 국방정책 등 좌지우지 대부분의 정부정책 좌지우지
공통점 ‘다이 하드’ 좀처럼 죽지 않음

진실을 감추고 왜곡, 편향된 시각으로 여론을 형성해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보수언론과 이에 편승한 한나라당은 이제 더 큰 무기를 손에 쥐려고 한다.

그것은 앞에서 확인한 한국 언론방송 현실 속에서 언론(신문)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이 방송소유까지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지난 4월 4일, 신문의 날에 이명박은 “신문이 방송통신과 협력해 매체로서의 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문 방송 겸업을 위해 “올해 안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재정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선·매경 등은 케이블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도와 프로그램 편성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조중동이 방송 겸업과 소유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향후 IP-TV(인터넷 TV)로 발전해 나갈 방송체계에서 신문이 방송을 운영하는 것이 지상파 같은 위상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현재 포화상태인 광고시장에서 재벌들의 광고는 조중동으로 집중되게 될 것이다.

조중동의 구상이 성공하게 되면 일본의 NHK 방송의 경우처럼 민영방송임에도 자국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지 않고 영업만 하는 방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처럼 정치적 영향력은 신문을 통해서 행사하고, 방송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를 꿈 꿀 가능성이 높다.

SBS의 경우 방송 운영의 노하우를 빼고도 연간 제작 운영비가 6천억 정도 소요되는데, 조중동은 그 정도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KBS의 장악 구상과 더불어 MBC의 민영화 논란은 현재 공영 중심인 한국방송의 상업적 운영으로의 방송시장 재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민영화, 즉 사유화가 되면 이익을 내는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프라임 시간대에 그나마 사회적 요구로 유지되던 시사적 프로그램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경쟁에 내몰린 방송은 필연적으로 선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

조중동은 최근 신문 방송의 겸업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하지만 유럽의 경우 철저하게 지역신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대규모 신문 역시 그를 옹호하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이회창이 국정을 논하고 나라 장래를 운운하는 현실도 암울한데 조중동이 언론을 독식하고 독점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곧 한국사회의 비극이다.

그러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쇄고기협정에 대해 여중생이 시작해 대중적 운동으로 터져 나온 촛불 시위와 곧이어 다시 여중생이 주도한 조중동 반대 투쟁은 예전의 사회운동 세력이 벌였던 조중동 반대투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으로 대중들의 중심적 요구로 자리 잡았다. KBS 앞에서는 연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시민들의 촛불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껏 한국사회 언론장악을 통해 조중동이 저질러온 폐해를 이제는 누구라도 알고 있고, 이명박의 언론장악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행과 끝없이 미국에 종속화 되어갈 불안한 미래에 대해 스스로 대안을 세우기 위한 투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1) 정수장학회가 30%가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연간 정수장학회에 MBC를 통한 수익분이 30억을 상회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시사적인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을 통해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MBC로서는 박근혜의 정치적 담보구조인 정수장학회의 운영 및 영향력 확대를 돕고 있어 아이러니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공영방송의 경우 TV 수상기만 있으면 무료로 보편적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고 공영방송으로 운영되는 KBS의 경우 시청료로 운영되는데 비용보다는 공영운영에 대한 기본료 개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국가인권위 권고 깡그리 무시, 폭력연행. 강제지문날인...
- 이명박 정권하에서 부시 방한 동안 내가 겪은 일들

인천평통사 유한경

부시가 방한하여 근사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8월 5일부터 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틀 밤을 보내는 등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부시가 방한한다는 8월 5일, 전날부터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고 있었지만 미친 소 수입을 강요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부시 방한에 맞서 우리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한 몸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기운을 내어 집을 나섰다. 혹시라도 이동 중에 배탈 때문에 실례를 할까 싶어 집을 나서기 한 시간 전부터는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은 채...

8월 5일 오후 5시 30분, 성남공항 정문 건너편에서 예정된 '부시 방한 규탄집회'.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성남공항으로 드나들 적마다 아무런 제지없이 기자회견, 집회 등을 했었던 장소이기도 했고, '집회금지통고 취소' 국가인권위 권고도 있었기에 당당하게 집회 장소로 향하였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성남공항 정문 구경은 커녕 가는 길목에 배치된 경찰들에게 평통사 차량을 비롯하여 집회 참석을 위해 이동 중이던 많은 분들이 고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후 5시 50분 경 성남공항에 도착한 부시일행이 우리가 고착되어 있는 도로를 지나갈 즈음 경찰들이 갑자기 분주해지더니 70세가 넘으신 이관복 선생님을 비롯하여 6명을 연행하고 평통사 차량을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지나가는 부시가 혹시나 볼까 싶어... (나중에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보니 진보신당 당원 6명도 붙잡혀 와 있었다. 그들은 집회장소였던 성남공항 정문 맞은편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연행되었다고 한다.)

부시가 도착한 그 시간, 나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도 받지 못한 채, 옷통과 바지가 벗겨져 맨살과 팬티가 다 드러나는 수모를 겪으며 경찰차에 내동댕이쳐지고만 것이다.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들은 연행사유는 집시법 위반이었다. 집회 장소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구호 한번 외쳐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집시법이란 말인가?

공권력 앞에 여성으로서의 인권조차 무참히 짓밟힌 나는 최소한의 항의표시로 목비권을 행사하였으나 결국 이틀 밤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내고 (신원확인을 명분으로 한) 강제지문날인을 당한 채 부시가 한국을 떠나고서야 석방되었다.

이것이 부시가 방한한 동안 내가 겪은 일들이다.

온갖 고초를 겪기는 했지만 우리들의 이번 투쟁으로 한미동맹을 위해 최소한의 집회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이명박 정권의 실체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한 우리의 투쟁은 어떤 탄압에도 결코 멈추지 않음을 보여주었으며 우리의 의지는 더욱 높아졌다.

함께 연행되었던 평통사 회원들과 진보신당 당원들은 불법, 폭력적인 연행에 몸은 자유롭지 못하였지만 고착되었던 장소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는 소식과 청계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석방 후에도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만날 것을 굳게 약속하였던 것이다.

|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엄마로부터 나온다!

서울평통사 이윤영

동의보감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라는 문구가 있다.

음식의 섭생이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음식을 먹는 건 단순한 즐거움을 뛰어넘어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나에게 음식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닌 건강을 지키는 도구로 변했다.

“아이스크림은 몸에 나빠요. 소시지, 햄은 몸에 나빠요.”

잠자리에 들기 전 딸아이인 명지에게 몇 번씩 따라하게 해 교육을 시킬 정도였다.

교육의 효과로 명지는 요즘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언니들을 보면 내 얼굴을 쓰으 쳐다보고

“엄마, 아이스크림은 몸에 나빠요!”라고 말한다. 이쁜 놈...^^

이런 나에게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는 ‘절대악’이었다.

쉬는 토요일을 골라 명지와 함께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처음 촛불집회에 나간 날, 너무 사람들이 많아 딸아이가 놀랬나보다. “엄마 집에 가자, 무서워, 무서워.....” 하며 내 품에서 안 떨어졌다.

딸을 내내 안고 있으려니 무척이나 힘들어서 노래만 몇 개 듣고 집으로 와야 했다.

그 후 몇 번의 집회에 더 참석한 후 아이 입에서 촛불집회, 촛불집회, 말이 떠나질 않는다.

할머니 앞에서도 촛불집회, 아빠 앞에서도 촛불집회. 한 술 더 떠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노래까지 흥얼거리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이니 결국 친정엄마와 아빠에게 난 나쁜 엄마로 찍혀버렸다. 자식까지 데리고 집회에 가는 몰상식한 엄마로 말이다.

그 후 토요일만 되면 친정엄마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우리 모녀를 감시하는 통에 명지와 나의 거짓말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명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서 노래를 부르는데, 하루는 촛불노래를 부르자면서 혼자 흥얼흥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가사가 이상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엄마로부터 나온다.”

‘엄마가 무서워서 그런가? 아님 아빠가 엄마한테 주눅 들어 있는걸 보고 그런가?’ 하고 별 별 생각이 다 났다. 그래서 “왜 엄마로부터 나와?”하고 물어보니,

우리 딸래미 왈 “엄마는 국민이니까!”

순간, ‘애를 영재학교에 보내야 하나?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하는 생각들에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쩡~하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촛불집회의 배후를 이명박이 거론 했을 때, 엄마들은 주저 없이 아이들이 배후라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부모의 몫이자 어른들의 몫일 것이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이제 먹을거리까지 안전해질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답답하다.

개인적인 바람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반대다. 그렇지만 적어도 재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반드시 찾아오길 바라며 그때까지 작은 힘이지만 명지와 난 촛불집회에서 재협상을 외칠 것이다.

내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이유

부천평통사 김미영

평통사 회원이 되고, 집회에는 가끔씩만 참여했었다. 집회라는 것은 나에게 ‘딱딱함’, ‘두려움’ 등 무겁고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집회’에 대한 내 느낌은 여전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냄비근성이 시작되었다’라는 말들이 나왔을 때에도 나 또한 완전히 동의는 못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사그라질 것’이라는 생각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회사일도 바빴지만 이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선뜻 집회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처음 참여하게 된 5월 24일 촛불 집회는 나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갖는 엄청난 힘, 사람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등 전혀 새로운 느낌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5월 31일의 촛불집회... 내가 참가한 두 번째 촛불집회였다.

31일 그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지하철 입구계단을 오르기가 힘들 정도였다. 나도 회사 동료들과 같이 참가하였다. 거리 행진을 하는 중간 중간에도 사람들이 가져온 피켓들은 신선함 그 자체였고, 그들이 외치는 구호와 노래들은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왜 우리는 그동안 집회를 하며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을까?

그들의 아이디어들이 웃음과 카메라의 세례를 받았다. 또한 폭우 속에서도 촛불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 비를 맞으며 묵묵히 참가하는 사람들, 촛불을 들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과 그들을 막는 사람들, 또한 촛불을 보호하는 사람들, 전경 버스 앞에서 앞으로 보내달라며 집회를 하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경찰들과 뒤로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 나는 물대포를 맞으면서도 한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꺾끗하게 자리를 지키고 서있는 그들을 보며 ‘자발적인, 스스로 원해서 참여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는 무서움이 없어 보였다.

한편에서는 악기를 가져와 새벽에 지친 사람들에게 연주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격하게 해주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온 것 같았다. 악기를 연주 할 수 있는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나와 연주를 하였고, 의료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 봉사를 하였고, 한쪽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자신이 챙겨온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음악을 틀어 놓고 춤을 추는 사람들.

정말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한 이들에게 경찰은 물대포와 경찰봉을 휘두르고 있었다. 물대포를 맞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불을 지피고 있는 사람들.

내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여태 집에만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사람들이 함께 목이 터져라 ‘재협상’, ‘전면무효’를 외치며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았던 것은 ‘먹거리에서 위협받고, 국민으로써 무시당하고, 이번에 물러서면 앞으로 더욱 힘들어 질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였던 것 같다. 나 또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같이 갔던 동료는 이런 말을 했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 그러나 그 시간 시청을 짝매운 사람들을 보던 순간, 눈물이 핑 돌았었다. 그리고 나 하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집회에 참가하여 앞에서 힘들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공감이 되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앞에서 힘들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은 소중하고 급한 일

인천평통사 이은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과 다양한 일들을 접하게 된다. 또한 매 순간 판단과 선택의 상황들이 놓이고 그런 판단과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져서 인생이란 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은 우리 삶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임엔 틀림없다. 그러기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여 선택하느냐는 우리 삶의 색깔과 방향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는 가로선상에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가로선상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나면 한마디로 소중한 일을 판단하고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늘 소중한 일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통사가 펼치고 있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 운동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급한 일이라는 것이고, 그 중요성을 이번 7·27한마당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얘기하는 가로선 상에 살기를 잠깐 설명하자면 이렇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은 4개의 매트릭스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소중하면서도 급한 일, 둘째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셋째는 소중하진 않지만 급한 일, 마지막으로 소중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중하면서도 급한 일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소중하지 않지만 급한 일 소중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첫째와 마지막의 경우에 고민하지 않고 선택한다. 소중하고 급한 일은 고민의 필요 없이 그 일을 선택해서 행하게 되고 소중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또한 고민 없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둘째와 셋째 경우이다. 많은 사람들은 소중하진 않지만 급한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살고,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자꾸 뒤로 미루며 살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분명히 자신의 삶에 있어 삶의 방향과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일임에도 먹고 사는 일이나 돈이 되지 않는 일이기에 소중한 줄 알지만 자꾸 세상 삶보다 뒤로 하게 된다.

또 가족, 친지, 친구, 동료들에게 안부전화를 하거나 사랑을 표현하고 사는 일, 독서나 공부하는 일, 운동하는 일들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일임에도 늘 부서 회식하는 일, 야근하는 일들보다 뒤로 미뤄지게 된다.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 두 번이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마는 보편적으로 우리 삶에서 많은 시간들 속에 이런 판단과 선택들이 더 많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는 소중한

일을 판단해서 늦고 더디고 힘들더라도 소중한 일을 선택해서 실천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나 또한 이 이론에 절대 공감하며 늘 소중한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평통사가 펼치고 있는 평화통일 운동은 바로 판단 매트릭스에서도 고민의 여지가 없는 소중한면서도 급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가 안정, 경제 성장 등 모두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토대가 바로 통일인 것이며, 통일 또한 자주적인 형태의 통일이여야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은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만 하는 일들 중에 소중한면서도 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삶이 판단과 선택의 매순간이 모여서 인생이 만들어지듯 민족이 해결해야하는 당대의 수많은 과제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모여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통사가 펼치고 있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들은 역사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과제는 소중한면서도 급한 일을 해결해 가는데 중요한 실천 사항인 것이다.

7월 27일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 한마당에 참여하는 내 머리 속은 참으로 많은 생각들로 채워졌다. 행사장 밖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물들을 보면서 몇 명 되지 않는 상근자들의 아이디어와 노력들이 떠올라졌고, 행사장 안에는 7:27 평화협정 체결 한마당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동지들의 부지런함과 성의를 느낄 수 있었고, 추진위원으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신규 추진위원들도 만날 수 있었다. 행사가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평화협정 체결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한국의 통일 관련한 근현대사를 담고 평화협정 체결의 당위성으로 연결 짓도록 제작된 영상물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역사 안에서 지금은 작지만 큰 힘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되새겨볼 수 있었다.

중앙 무대에 걸쳐 있던 파도치는 바다 가운데의 찢겨진 성조기는 소용돌이치는 파도같이 역경 속에 달려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게 했고, 우리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향한 파도같은 노력들이 있어야 마침내 성조기를 찢어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함께 해 보았다. 참가자 전원이 힘을 모아 끌어당겨 터트린 박에서 나온 '미군없는 평화세상 만세'라는 현수막의 내용은 자신의 위치에서 미약하나마 통일 운동에 노력해 온 우리들의 무지갯빛 희망이며 바로 귀하디귀한 보물이니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걸쭉한 육을 섞어가며 분노를 토해내던 발표자와 칠순 노인의 애끓는 자주 통일을 염원하던 시낭송, 분단의 쇠사슬을 평화협정체결로 끊어보자는 결의의식, 주한 미 대사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등 미 대사관 앞에서의 집회 또한 한여름 더위보다 더 뜨겁지 않았던가 생각한다.

시민공원에 마련된 저녁밥상. 비록 땅바닥이 자리로, 공원 벤치가 밥상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융숭한 진수성찬이 없을 것 같이 꿀맛 같았던 것은 바로 소중한 급한 일을 판단하고 선택했던 자주 통일을 염원하는 동지들과 함께 해서임이 틀림없었다. 인천으로 내려오던 전철 안에서 문득 드는 생각,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이 더 큰 걸음으로 나가 설 수 있음을 생각해보았다.

앞으로 나의 삶에서 얼마큼 더 적극적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소중한면서도 급한 일, 바로 자

주 통일을 향한 노력들은 빼놓을 수 없음을 다짐하며 2차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운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함을 생각해 본다.

끝으로, 늘 이 험난한 길을 소중하게 여기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평통사 상근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한다.

| 지역평통사 모임과 활동 |

서울

서울평통사는 7월 16일(수) 저녁 7시 30분, 명동 향린교회 3층에서 문규현 신부님과 함께 하는 평화이야기 ‘반갑다 평화! 잘가라 미군!’을 개최하였습니다. 25개 단체들과 함께 한 이번 행사에는 2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치뤄졌습니다. 문신부님은 지난 1989년 임수경 씨와 관문점을 넘어 남으로 돌아온 일화를 당시 영상으로 소개해주시며, 남과 북으로 분단된 조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양에서 열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아리랑 연주 영상이 상영될 때는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문신부님의 삶을 떠올리며, 아름다운 그 선율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하고 만들어갈 평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8월 8일(금)~9일(토) 이틀간 서울지역의 통일단체들이 모여 만드는 ‘미군없는아름다운서울대행진(미없서)’이 열렸습니다. 서울평통사도 공동주최로 참여하였고, 8월 8일(금) 오후 1시부터 최문희 교육부장의 안내로 60여명의 서울지역 통일선봉대와 함께 용산미군기지 둘러보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미대사관 앞 광화문 KT에서 열린 ‘조공외교, 전쟁동맹, 불평등한 한미동맹 규탄대회’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집회에 황윤미 사무국장이 지난 8월 5일 이뤄진 부시 방한 투쟁과 한미군사동맹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힘찬 연설을 하였습니다.

8월 8일(금) 저녁 8시 30분, 여덟 번째로 열린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를 위한 주민 촛불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서울평통사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유호명, 최봉준 회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유호명 회원님은 집회 연설로 고향을 빼앗긴 실향민의 입장으로 주민 분들을 이해하고 반드시 고향을 지켜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절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구호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당황했지만 확장반대에 대한 의지를 누구보다 강하게 표하셨다는 생각에 함께 웃었습니다.

매일 매일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보다 많은 서울 평통사 회원들이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김슬기(서울평통사 홍보부장)

부천

평화분회에서 작년 금강산기행에 이어 올해에는 무건리 평화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화협정 실현 추진위원회와 길잡이들과 함께 무건리, 직천리, 오현리 일대에 조성된 전술훈련장을 둘러보며 미군이 현재 이 땅 민중들에게 어떤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지 보고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호 부천평통사 소식은 기행에 참여하셨던 최재숙님의 소감을 실었습니다.

| 김숙희(부천평통사)

최재숙님의 무건리 평화기행 후기

달 포전에 아이들과 함께 파주에 있는 무건리 기행을 다녀왔다. 내가 본 무건리의 첫인상은 산세가 우거지고 천연기념물인 백로가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잠시 뿐 오현리, 직천리, 무건리 일대 마을은 평화롭지도 조용하지도 않은 곳이었다.

미군 장갑차에 희생당한 효순이 미선이 추모비가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은 채 우뚝 서 우리를 맞이했고, 한·미공동 훈련장의 푸른 산은 포탄훈련으로 못 먹던 시절 기계충에 걸린 어린아이의 머리처럼 군데군데 파여 있었다. 훈련장은 1986년부터 차츰 늘려 현재 550만평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또 다시 2배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은 파괴되고 국방부는 주민들이 스스로 떠나게 하는 정책을 교묘하게 쓰고 있다고 한다.

천연기념물인 백로 서식지를 보기 위해 간 곳은 미군이 훈련한다는 넓은 평지였다. 멀리서 우리아들이 “엄마, 이게 뭐야?”하면서 플라스틱 물건을 손으로 만지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대인지뢰’라고 쓰여 있었다. 순간 등줄기가 오싹했다. 불발된 지뢰인 줄 알고 버리라고 소리쳤다. 그것을 본 이장님께서 군사훈련 때 쓰는 지뢰모형이라고 하셨다. 그때서야 안도를 했다. 장마비에 흙이 유실되어 지뢰가 노출되면 그 피해는 아무 잘못 없는 민간인일 게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직천초교에서 이용남 사진작가님의 슬라이드를 보았다. 미군의 모습과 주민피해 사진들이었다. 일상생활에 빠져서 잊고 살았고,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분노와 격한 감정이 올라왔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왔다가 장갑차에 치여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 아들이 쥐고 있던 500원짜리 동전을 두 손에 넣고 흔들면서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을 달래는 아버지는 미군장갑차를 막고 있었다. 울컥 눈물이 나왔고 부모 된 마음으로 가슴이 멍멍해져 왔다.

미군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킨다는 허울 속에 잔인한 폭행들을 일삼고 있다. 생명을 빼앗고, 자식처럼 키우던 소를 스트레스 받아 죽게 하고, 소중한게 일구고 살아온 터전을 빼앗고, 서로의 갈등을 조장해 평화를 빼앗고 있다.

평화는 나눔이다. 대추리에서, 무건리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평화는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무건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투쟁의 현장이 아닌 평화로워진 무건리 마을에서 그 때 못 먹었던 콩국수를 먹고 싶다.

인천

추진위원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자리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

7월 27일(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에 인천에서는 123명의 길잡이와 추진위원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울로 상경한 것은 인천평통사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한 평화협정 운동의 성과입니다.

김호영, 정재훈 부부 추진위원과 김선미, 최현호 부부 추진위원은 각각 세 아이를 데리고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정동근 추진위원은 전날부터 휴가였음에도 7·27 행사를 마치고서야 가족여행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13명의 지인들과 함께 참석한 서경혜 추진위원(가톨릭노동장년회 회장)은 “내가 할 말은 하는 사람인데, 매우 배울 점이 많았고 즐거웠다”며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박복실 추진위원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은 영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며 “평화협정의 때가 왔구나!”, “평화협정 운동이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당면한 운동이구나!”, “그동안 많은 것을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노경희 추진위원은 “경과보고를 들으니 1단계 목표에 많이 부족하더라.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따끔한 충고와 함께 결의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첫 번째 촛불문화제

김일회 공동대표님이 직접 운전하는 봉고차를 타고 김맹규, 심자섭 회원을 비롯하여 10여명의 회원들이 무건리 첫 번째 촛불문화제 행사를 위해 달려갔습니다. 무건리 인근에 살고 있는 김원식 회원도 함께 하였습니다. 확장예정지를 둘러본 후 참가한 첫 번째 촛불문화제에서는 주민들의 고향을 지키려는 결연한 각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원식 회원은 집이 가까우니 자주 주민 분들을 만나러 오겠다고 합니다. “무건리 주민여러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 유한경(인천평통사)

[알립니다]

회원·후원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김태영, 신나영, 김종선, 윤선영, 고정은, 최성목, 한영순, 김재복, 선세규, 권창식, 이상준, 이영라, 양승조, 김태룡, 박완섭, 노경희, 조병규

감사합니다.

창립5주년 행사 ‘평화카페(6/6)’ 후원해 주신 분들

가톨릭노동장년회 가톨릭정평위 가톨릭환경연대 강동주 경기남부평통사 고상주 고영남 공부방연합회 공회정 광주전남평통사 구월공부방군산평통사 권태형 금속노조인천지부 김강연 김금옥 김대영 김민나 김민서 김병철 김보희 김상기 김상식 김원식 김의숙 김일회 김정대 김종오 김종철 김종현 홍운선 김진욱 김충효 김학용 김희숙 남익현 류성훈 무건리주민대책위 문경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박귀현 박기학 박

기현 박문숙 박상태 박상호 박석민 박순길 박영민 박종익 박홍순 벽산아파트관리사무실 부
천평통사 박준도 서경혜 서덕용 서영선 서울평통사 서재훈 성신수녀회 손선재 솔숲공부방
송한석 신나영 신동훈 신창균 신창선 신필녀 신현범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심자섭 심재
건 심재섭 심정동성당 안동평통사 안용국 여영석 오성수 오현곤 오혜영 유미자 유한경 윤인
중 윤화심 이건덕 이남희 이성수 이승천 이영성 이은순 이은직 이종일 이준걸 이진국 이진
권 이천직 이춘식 이해정 이호민 인수범 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인천대공대 인천사랑
병원노동조합 인천여성의전화 임경희 장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북평통사 전소
현 전혁구 정동근 정동석 정명락 정백영 정성준 정송호 정유성 생명평화기독연대 조남순 조
동일 조성혜 조승철 조승현 조영정 조인휘 조정현 주병준 진재환 최경순 최소영 (주)키친아
트 평통사 평화재향군인회인천지부 평화통일연구소 하태준 한연숙 허문예 현우진 홍학기 황
상근 황현숙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경기남부

평택미군기지 확장공사,

우리 국민의 투쟁으로 막아내자.

평택미군기지 확장공사가 진행되면서 평택과 인근지역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지 확장비용이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원래 3.3m 높이로 기지 땅 돋우기(성토공사)가 주한미군의 요구로 6.2m까지 높여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토 높이가 사람 키의 3배가 넘기 때문에 25톤 덤프트럭 1대 분량의 토사로도 채 한 평을 채울 수 없다고 하니 285만평의 땅을 성토하려면 그 많은 흙을 어디에서 구한단 말입니까? 이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수백 년 동안 백성의 피눈물로 만리장성을 쌓은 고대 중국 왕조들은 결국 백성들의 저항으로 권위를 멸하였습니다. 제주도 해군기지부터 군산, 평택, 무건리 훈련장까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망을 쌓고 있는 미국은 한국민의 재산 착취와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투쟁으로 미군을 이 땅에서 기어이 몰아낼 것입니다.

8월 2일 새벽 2시경, 확장되는 안정리 기지 내의 미군이 흥기를 들고 편의점에 침입하여 강도짓을 하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수 백년 흑인노예들을 착취하던 미국인들에게 한국민은 벌레에 불과한 것일까요?

8월 5일과 13일에는 경기지역통일선봉대와 노동자통일선봉대가 평택미군기지투쟁을 전개하고 대추리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통일선봉대는 기지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크게 분노하고 대추리 주민들과 함께 평택투쟁을 끝까지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평택지역에서는 기지문제에 대한 투쟁의 공감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평화한마당을 계기로 지역 대책위원회 건설문제와 월례집회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현호헌(경기남부평통사 사무국장)

[알립니다]

쭉평택평화한마당

8월 30, 31일 평택시청에서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는 평화한마당이 개최된다. 경기남부평통사는 “외세침략 100년”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하고 배지 등을 만들어 시민들과 나누는 한편 평택미군기지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쭉오산분회 모임

8월 21일 저녁 오산에서 경기남부평통사 오산분회 두 번째 모임이 진행된다. 이날 모임에서는 무건리 훈련장 현황을 공유하고 경기남부평통사의 주민촛불집회 참가 등을 논의한다.

쭈꾸건리 훈련장 주민풋볼 참가

지난 8월 1일 파주 오현리 주민들이 첫 풋볼을 드는 자리에 참가했다. 경기남부평통사는 앞으로도 매주 1회 이상 풋볼문화제에 참가할 계획이다. 차량 이동시간이 왕복 5시간 이상이 걸리는 긴 거리지만 잘 조정하여 매주 다녀올 예정이다. 평택투쟁도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대전충남

정세강연회 개최

지난 7월 24일 평통사 유영재 정책실장을 모시고 정세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7·27 평화협정 한마당을 앞두고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과 평화협정 실현운동 추진위원들이 참여하여 6자회담의 전망과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8월 9일 7·27 정전협정 체결 55주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심포지움이 6·15 남북위 대전충남본부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주발제를 하였으며 대전충남 평통사,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통일교육협의회에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전평화여성회 최영민 운영위원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이란 토론문을 통해 끝나지 않은 전쟁의 피해자는 여성임을 밝히면서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 체결의 요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평화군축을 제시하고 이러한 요건이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넘어 여성이 바라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를 실현하려는 가치와 부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많은 여성들이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들의 평화감성을 높이고 평화문화를 확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과제도 제시하였습니다. 대전지역에서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으며 6자회담의 진전과 평화협정 체결 정세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싱그러운 청포도

지난 8월 2일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한용세 이사장님의 포도농장을 유병규 운영위원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포도농장에는 포도 뿐만 아니라 옥수수, 상추, 피망, 오이, 호박, 토마토 등 많은 농작물이 있었고, 전부 무농약이라 정말 맛있었습니다. 포도농장에서의 일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비가 내리고 일을 멈추고 쉬면 비가 멈춰서 일은 얼마 못하고 비만 맞았습니다. 농장 일을 도우러 갔는데 민폐만 끼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8월 11일에는 대전충남평통사 재정사업으로 청포도를 판매하기로 하고 청포도를 수확, 운반, 포장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우스 안은 무척 더웠지만 청포도가 탐스럽게 열렸고, 그 향기는 코를 즐겁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청포도를 트럭에 싣고 주문하신 분들께 직접 배달을 하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활동기금 마련 청포도 판매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본인의 차량을 지원해 주신 고준택 회원, 차량을 직접 운전해 주신 유병규 운영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도정(대전충남평통사 사무국장)

전북

1950년 미군 이리폭격 희생자 추모제

1950년 미군의 폭격에 의해 희생당하신 분들의 영혼을 기리는 제9회 “1950년 미군 이리폭격 희생자 추모제”가 7월 11일 있었습니다. 이날 추모제에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유족들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루속히 명확한 진실규명만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영혼이 편히 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참여자들의 격려사와 유족들의 증언, 유족회 회장님의 말씀과 헌화의 시간을 가진 뒤 역사 안 추모비까지 행진을 한 후 위령제를 마쳤습니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전북평통사 평화의 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과 전북평통사 후원을 위한 전북평통사 평화의 밤이 지난 7월 20일, 익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멀리 광주에서 배종렬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광주전남평통사 회원들이 참여하였고, 전북평통사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세우 대표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전병생 대표님의 평화 이야기, 배종렬 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이세우 대표님의 부인인 안성숙 사모님과 딸 이해솔 양의 바이올린 연주, 가수 김 운(단비교회 집사)씨의 노래공연, 촛불문화제와 평화협정 동영상을 보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미흡한 음식으로 손님들을 대접하여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음식이 맛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평통사 평화의 밤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최성훈(전북평통사 사무국장)

군산

군산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새만금에 철조망 설치공사로 군산미군기지 확장 의도 드러내 !
지난 7월 8일부터 주한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현 군산미군기지 서해상 경계에서 새만금 부지와 맞닿아 있는 갯벌부분에 주변 연장 432m, 면적 31,000㎡(약 1만평)나 되는 반원형 모양의 철조망 설치 공사를 진행하여 새만금 부지에 미군기지를 확장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철조망 인근에서 불법소각과 폭발물 실험을 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행위를 일삼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철조망 설치에 대해 미공군 측은 “1970년에 공여지로 제공받은 43,300㎡ 크기의 지역 안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도 철조망 설치지역이 미군공여지라고 하긴 했지만 철조망 설치지역을 비롯한 주변 공여지 현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공여지를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 매해 1회 이상 공여지를 검토”하도록 한 한미 소파 양해사항 제3항(다)에 따라 해당 공여지를 매해 1회 이상 검토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공여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군산평통사와 전북평통사는 군산, 전북지역 시민단체과 7월 22일 철조망 설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24일에는 군산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단장 비어튼 대령을 불법 철조망 설치 및 폭발물을 불법적으로 폭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평통사 상임대표인 문규현 신부님, 군산평통사 유승기 대표님과 운영위원들, 전북평통사 전병생·이세우 대표님도 함께 했습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군산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평화대행진’에서 불법 철조망 철거를 촉구하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여는 등 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투쟁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김연태, 이성원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출,

박영희, 김진환 신입회원 가입

지난 7.3 운영위에서 김연태 회원(현 대학노조 통일위원장)과 이성원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해 운영위원이 1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촛불집회에서 군산평통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박영희 회원이 스스로 평통사를 찾아와 회원으로 가입한데 이어 박영희 회원의 선배인 김진환 씨도 최근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8월 17일 회원 단합을 위한 삼겹살 파티

군산평통사 창립이후 새로운 운영위원, 회원들이 친목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삼겹살 파티가 발산리에 있는 문성주 운영위원·엄미숙 회원의 집에서 열여 모처럼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김판태(군산평통사 사무국장)

광주전남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 실현 운동,
보다 자신감을 갖고 2단계에 돌입하다.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일을 맞이해 진행된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에 적은 인원이지만 결의 높게 참석하였습니다. 전남 중·동부지역의 회원들과 행사 당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많은 종교인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무안, 나주, 광주지역 회원들 3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광주전남평통사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평화협정 실현 운동을 벌인 결과 추진위원 360명, 길잡이 1,657명, 회원과 후원회원 50명 가입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초반 계획인 추진위원 700명, 길잡이 7000명, 회원 조직 200명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1단계 운동을 통해 자신감이 늘었습니다. 또한 운동 과정에서 광주, 전남지역에 '평통사'를 알리는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부족한 점 또한 있었습니다. 상근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보다 다양하고 힘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 길잡이, 회원 조직 사업에 있어서 전체 회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소수의 회원만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으며, 추진위원과 회원 조직의 분포에 있어서도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7월 27일 당일 행사에도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 또한 남았습니다.

다른 지역 평통사와 마찬가지로 광주전남평통사도 8월 8일부터 2단계 평화협정 추진운동에 돌입했습니다. 1단계보다 더욱 진전되고 힘찬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정동석(광주전남평통사 사무국장)

[알립니다]

쭈7·27 행사 참여와 특별 후원 : 서창호, 박종주, 전영남, 박석중, 김용성, 해남지역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쭈 평통사 상임대표이며 전 광주전남평통사 상임대표이신 배종렬 대표님께서 7월 25일 결성된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 상임대표로 추대되었습니다.

쭈 해남읍교회 부목사로 재직하셨던 박수현목사가 7월 26일 화산교회로 부임하셨네요. 축하해 주세요.

쭈 나주사랑시민회 안희만 상임대표와 최진연 전 상임대표께서 나주시의회의 파행적 운영과 관련해서 7월 31일부터 1주일간 단식 농성을 전개했습니다. 많은 격려 바랍니다.

회원·후원회원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김관주 목사, 김기중, 김민호 목사, 김용수, 김정수, 박병율, 이형준, 장우광, 정기대 목사,
정형달 신부, 한경진

안동

대구경북 장기수 어른과 함께하는 야유회

분단이 낳은 최대의 비극 하나를 들라면 바로 인간으로선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사상 최장의 감옥살이와 이에 수반된 인권유린이 아닐까 합니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30년~40년의 엄청난 세월을 단 몇 평도 되지 않는 감옥에서 보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음에 문득 놀람기도 하거니와 매우 두렵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안동평통사가 주관한 장기수 어른과 함께하는 야유회는 6월 29일 오후 12시 안동시 임하면 소재 강가에서 우리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와 민주인사 등 약 30여명, 그리고 친지를 포함 장기수 어른 약 20여 분이 참가하여 이후 사전 준비된 여러 음식과 다과를 나누며 환담과 노래 등으로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7·27행사 참여

7월 27일은 이 땅의 분단이 고착화된 정전협정일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 평통사가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추진해왔습니다. 그 평화협정의 전제는 무엇보다 완전한 주한미군의 철수입니다. 주한미군이 없는 평화협정이야말로 진정한 평화통일로 가는 단초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안동평통사에도 추진위원과 길잡이 모집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쇠고기정국으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된 어려움도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추진위원들과 길잡이 모집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집된 추진위원의 추동된 힘을 모아 반드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앞당기자는 취지의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 행사가 정전협정일인 지난 7월 27일 서울에서 열렸는데, 우리 안동에서는 김창환 회장님 이하 10 여명이 적극 동참하였고 하루 빨리 미군 없는 평화협정을 앞당기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12일(토)에는 아주 훈훈한 미담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그 미담의 주인공은 안동평통사 김정석 회원입니다. 김정석 회원은 안동신시장 안에서 십여 년째 건어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평통사에서 통일사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장사를 하면서 나오는 적지 않은 박스 등의 폐지를 모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년여에 걸쳐 모은 폐지가 약 2톤에 이르렀고 그것을 되팔아 227,000원의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김정석 님은 이 소중한 돈을 북녘어린이 영양 빵공장 경북본부장이신 배용한 님께 북녘어린이돕기에 긴급하게 써달라며 수입금 전액을 기부하셨습니다. 이날 김주철 님과 박용제 님이 함께 수고해주셨는데 김주철 님은 이후에 본인도 빈 병과 깡통 등을 모아 통일사업에 보태겠다는 포부를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김정석 님의 선행에 감사드립니다.

|한철희(안동평통사)

| 사진이야기 |

을지자유수호연습(UFG)

‘자유수호’라... 이름 한번 거창하다. UFG는 해마다 미군과 한국군이 북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쟁연습이다. 몇 년마다 이름을 바꾸는 바람에 헛갈리고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연습의 핵심이 북에 대한 점령을 전제로 이뤄지는 대북침략 연습이라는 것은 안다. 자유수호와 한참 거리가 먼 얘기가 되겠다. 언제 닥칠지 모를 전쟁위협에 대비한 방어연습이라는 명분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미군의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진행되는, 동원되는 인원만 4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모의 전쟁연습이다. 평통사는 반전평화단체와 연대하여 전쟁연습을 규탄하고, 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미대사관과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TANGO) 앞에서 벌였다.

8.15 민족통일대회

광복 이후 해마다 민족의 해방을 기념했던 광복절을 ‘건국절’로 왜곡해버린 이명박 대통령. 이번에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그의 발상에 경의를 표한다. 어김없이 집회와 행진 ‘불허’ 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로니에 공원에 모였다. 평통사는 홍근수·배종열 상임대표를 비롯한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구호가 잠시 비가 멈춘 도심의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집회 후 삼삼오오 모여 신세계백화점 앞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기습적으로 100차 촛불문화제를 성사시켰다.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맞아가며 한밤의 질주는 계속됐다.

미군 뒷바라지 비용 = 방위비 분담금

무려 7,415억 원이다. 미군 뒷바라지에 쓸 돈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 미군 대줄 돈으로 민생복지 해결하라는 것이다. 지난 81차 평화군축집회 때 인천공대 새내기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 ‘88만원세대’로 불리는 그들의 요구는 특히 절박해 보인다. 한편 지난 4일에는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한미군 지위 문제 등에 대응하여 21 한미전략동맹과 주한미군주둔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문제를 재검토 해보자는 취지에서 민변에서 준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21C 한미 전략동맹의 굴욕적 실태와 방위비 분담금 폐기의 시급성’에 대해 밝혔다.

회비와 후원금(6~7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중앙

[대표/임원] <6월> 강정구 김성윤 김홍수 문규현 문홍주 박용일 배종열 변연식 이일영 장경옥 정순영 홍근수 <7월> 강정구 김성윤 문규현 문홍주 배종열 변연식 이일영 임종철 장경옥 정순영 홍근수 홍창의

[후원회비] <6,7월> 박춘원 서경숙 우경태(4개월) 유영섭 이광수 이성호 이은혜 임동명 최문숙 최재영 하정일(4개월) 한희숙 홍민애

[특별회비] <6월> 여성분회(2개월) 전영남 <7월> 여성분회(2개월) 임종철 장례위원비(임종철 문홍주 고영대) 전영남

[후원금] <6월> 범민련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오혜경 전남 기장 해남시찰회 정창문 법사(미국LA) 향린교회 회년남신도회 <7월> 강남교회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이낙호 지안나 최영조 푸른마을교회 향린교회

서울 평통사

[6월 회원회비] 강유겸 강찬희(2개월) 고이지선(2개월) 공동길 김동훈 김명일 김상진 김석제 김성윤(2개월) 김순정 김슬기 김연옥 김영리 김영진 김종일 김종현 김종한 김지수 김진환 김채석(2개월) 김치섭 김현미(2개월) 김현성 김현애 김화수 김후중 나영훈 노돛돌(여성분회) 문석우 문성현 박종권 박종기 박준희 백차현 서광석 서동빈 서영석(2개월) 서창석(2개월) 선소진 선순단 송민영 신재훈 신재희 오갑성 오미정 유현규 유호명 이경목 이경아 이민규 이병일 이성열(2개월) 이수정 이형수 이수지 이승규 이승민 이윤영(2개월) 이종남 이종민 이준호 이행복 이현숙 이해진 박승렬 이호민(2개월) 인민지 김종완 임동원 임보라 임희호 장성식(2개월) 장속도 장윤지 장희수 전영규 정귀남 정기열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신화 정준영 정혜열 조영래 조요환 조창현 주재영 최낙현 최문희 최소영 추정수 탁재범 한문덕 한호석 허정섭 현동식(3개월) 황규금 황도연 황윤미

[6월 후원회비] 강애란 강양원 강영옥(2개월) 고경심 곽상진 권영무 김각영 김균열 김기환 김문영 김미영 김민이 김상중(2개월) 김석순 김선희 김성원 김세옥 김승현 김영진 김영호 김용순 김유중 김점희 김정자 김진미 김충례 김향연 김혜숙 김화순 김희국 김희영 나현대 나혜영 남인순 노은아 문경희(2개월) 박경혜 박사라 박승환 박은봉 박후임 서보혁 서정호 서황석 손은정 송금심 송혜진 순상환 신만호 안지성 양계탁 양창호 여혜숙 오행진 오혜경 유영철 윤민재 윤영수 이강택 이경희 이광숙 이남현 이덕희 이명학 이상근 이상희 이소영 이순혁 이승무 이애용 이연자 이영옥 이윤 이인희 이재정 이정용 이정태 이창호 이춘미 이해삼 이현준 이해경 이해순 임영인 정순영 정은선 정철호 천상배 최용기 하보애 한기황 한상근 한상옥 한선영 한재현 허경자 허현중 홍만표 홍승완 홍혜자 황호정

[7월 회원회비] 강유겸(2개월) 강찬희 고이지선(2개월) 공동길 권병길 권혁문(2개월) 김정

자(2개월) 김동훈 김명일 김상진 김석민 김석제(2개월) 김성운 김순정 김연옥 김영리 김영진 김종일 김종일 김종현 김중한 김지수 김진환 김채석 김현미(2개월) 김현성 김현애 김현진 김화수 김후중 나영훈 노덧돌(여성분회) 문석우 문성현 박석분 박선자(2개월) 박종권 박종기 박준희 백차현 서광석 서동빈 서창석 선소진 선순단 손우정 송민영 신재훈 신재희 오갑성 오미정 우미정 위선남 유영재 유현규 유호명(2개월) 윤영일(4개월) 이경목 이경아 이민규 이경옥 이병일 이성열 이수정 이형수 이수지 이승규 이승민 이윤영 이인호 이종남 이종민 이준호 이행복 이현숙 이해영 이해영 이해진 박승렬 이호민(2개월) 인민지 김종완 임동원 임보라 임희호 장성식 장속도 장윤지(2개월) 장희수 전영규 정귀남 정기열(2개월)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신화 정준영 조영희(2개월) 조요환 조창현 주재영 최낙현 최문희 최소영 추정수 탁재범 한문덕 한상준 한호석 허정섭 허학범(2개월) 황규금 황선 황윤미

[7월 후원회비] 강애란 강양원 강영옥 고경심 고예정(2개월) 곽상진 권영무 김각영 김균열 김기환 김문영 김미영(2개월) 김민이 김보경 김석순 김선희 김성원 김세옥 김승현 김영진 김영호 김용순 김유중 김재운 김점희 김정자 김진미 김충례 김향연 김혜숙 김 호 김화순 김희국 김희영 나현대 나혜영 남인순 노은아 문경희 박경혜 박사라 박승환 박은봉 박후임 서보혁 서상미(2개월) 서정호 서황석 송혜진 신만호 양계탁 양창호 여혜숙 오행진 오혜경 유영철 이강택 이경희 이광숙 이남현 이덕희 이명학 이병용(2개월) 이상근 이상희 이소영 이순혁 이승무 이애용 이연자 이영옥 이 윤 이은영(2개월) 이인희 이재정 이정용 이정태 이창호 이춘미 이현준 이해경 이해순 임영인 정순영 정은선 조명환(2개월) 천상배 최용기 한기황 한상근 한재현 한중현(2개월) 허경자(2개월) 허헌중 홍길표 홍승완 홍정호 홍혜자 황호정 이남현

부천평통사

[6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신광 강용애 강혜선 구현모 권혜숙 광노충 김덕근 김미영 김민옥 김성근 김성용 김성훈 김숙희1 김숙희2 김성희 김인영 김정호 김정훈 김종대 김주영 김지숙 김진숙 김현숙 노은하 문은정 박병준 박병훈 박석진 박숙경 박옥선 박용섭 박은영 방정미 배영미 백창석 서경숙 서혜숙 석의정 성명수 성명은 소우영 손석환 손장현 손종옥 신장호 신정길 양난영 원유탉 유길준 유승우 유정엽 윤영근 윤재명 윤재윤 이경숙 이리나 이보영 이상수 이상원 이숙주 이숙진 이영재 이영아 이옥화 이종주 이준훈 이진혁 이현주 임숙영 임채경 임현순 장동환 장미숙 정상희 장인옥 장해영 전윤미 정승현 정용진 정창옥 조미옥 조민우 조지선 주명숙 주정숙 지은희 지태봉 차복례 채정자 최경호 최은주 최지선 최경순 최정규 최혜정 최희준 황영신 황영희 허호인 현낙철 현지환 홍갑표 홍제숙 홍진표 홍혜숙 한태희

[7월 후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신광 강용애 강혜선 고은경 광노충 구현모 권혜숙 김덕근 김민옥 김성근 김성용 김성희 김성훈 김숙희1 김인영 김주영 김지숙 김진숙 김재형 김현숙 문은정 박병준 박병훈 박석진 박숙경 박옥선 박은영 방정미 배영미 서경숙 서혜숙 석의정 성명수 성명은 소우영 손장현 손종옥 신장호 신정길 양난영 원유탉 유길준 유승우 윤영근 유정엽 윤재명 윤재윤 이경숙 이리나 이상수 이상원 이숙진 이숙주 이영재 이영아 이옥화 이종주 이준훈 이현주 임숙영 장동환 장해영 전윤미 정승현 정용진 정창옥 조미옥 조지선 주명숙 주정숙 지은희 지태봉 차복례 채정자 최경순 최경호 최은주 최혜정 최희준 황영신

황영희 한태희 허호인 현낙철 현지환 홍제숙 홍진표 홍혜숙

인천평통사

[6월 회원회비] 고상주 고영남 곽준경 구완모 권태형 김경민 김경태 김경희 김대영 김민서 김백수 김병철 김보희 김선미 김영역 김오섭 김일회 김정녀 김종현 김주숙 김중찬 김창수 김호영 김희겸 두현진 류성훈 문한나 박광선 박순길 박승문 박유순 박인호 박종익 박창훈 백요순 서경석 서경혜 서동완 서영선 서재훈 서재훈 서화조 소예숙 신동훈 신창선 신창균 신필녀 신현범 심자섭 안용국 여영석 오현곤 유한경 유한수 윤인중 윤화심 이경준 이무용 이용수 이영성 이은순 이은직 이재운 이종훈 이준걸 이진권 이진실 이천직 이춘식 인수범 임재훈 장광수 장근수 장금배 전혁구 정유성 정재훈 정형서 조남순 조성혜 조승철 조승현 조인휘 조인휘 진재환 차광호 최장수 최종락 최현호 한미현 한연숙 홍 종

[6월 후원회비] 고대권 김금옥 김대인 김명중 김미영 김상기 김지영 김지은 김정대 김태정 김창한 김희숙 문병호 박상태 박상호 박순희 박영민 백은정 서덕용 소병옥 송경평 송정로 송한석 신용준 신정순 심이섭 심재건 안용원 오석근 오종춘 오창근 오혜영 유미자 유재원 유정희 유한성 유한진 이거중 이덕규 이미경 이미영 이승미 이승천 이옥희 이은희 이진범 이형진 이해정 이화전 임경희 임병구 임용렬 전영우 정동근 정명락 정백영 정연실 정유선 정운엽 조태영 천재용 최명희 최민우 최원식 최 웅 하태준 허문예 홍학기 황선하

[7월 회원회비] 고상주 고영남 곽준경 구완모 권영준 권태형 김강연 김경민 김경태 김대영 김민서 김백수 김보희 김선미 김영역 김오섭 김은영 김일회 김주숙 김중찬 김종오 김종현 김창수 김호영 김희겸 남익현 두현진 류성훈 문한나 박광선 박순길 박승문 박유순 박인호 박종익 박창훈 백요순 서경석 서경혜 서동완 서영선 서재경 서재훈 서화조 소예숙 송영주 송재철 신나영 신동훈 신창선 신창균 신필녀 신현범 심자섭 안소희 안용구 여영석 오수정 오혜란 유정섭 유한경 유한수 윤선영 윤인중 이경준 이남희 이무용 이은순 이은직 이용수 이재운 이종훈 이준걸 이진권 이진실 이천직 이춘식 인수범 임재훈 장광수 장근수 장금배 전혁구 정송호 정유성 정재훈 정현숙 정형서 조남순 조성혜 조승철 조승현 조인휘 진재환 차광호 최성목 최영준 최종락 최현호 한연숙 홍 종

[7월 후원회비] 김금옥 김대인 김도식 김명숙 김명중 김상기 김정대 김지영 김지은 김창한 김태정 김희숙 문병호 박기현 박상태 박상호 박순희 박영민 박완섭 백은정 서덕용 소병옥 송정로 송한석 김민서 신용준 신정순 심이섭 심재건 안용원 양승조 오석근 오종춘 오창근 오혜영 유미자 유재원 유정희 유한성 이거중 이덕규 이미경 이미영 이승미 이승천 이옥희 이은희 이진범 이형진 이해정 이화전 임경희 임병구 임용렬 전영우 정동근 정명락 정백영 정연실 송경평 정유선 정운엽 조영정 조태영 천재용 최명희 최민우 최영미 최원식 하태준 허문예 홍학기 황선하

경기남부평통사

[6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상욱 권혁범 김기덕 김민수 김승만 김시훈 김택균 문종식 (2개월) 민영완 변혜숙 손영인 신종원 오영미 이근량 이수용 이승운 이양진 이우곤 이은우 이재영 이종필 이진희 이현주 정창원 한은숙 황재순(2개월)

[7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상욱 권혁범 김민수 김승만 김시훈 김택균 문종식 민영환
 변혜숙 손영인 신종원 오영미 이근량 이수용 이승윤 이양진 이우곤 이은우 이재영 이종필
 이진희 이현주 정창원 한은숙 황재순

대전충남평통사

[6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대훈 강선호 고양우 고준택 권선필 권선혜 권 인 김기수
 김미경 김미옥 김영석 김재봉 김제선 김종필 김종훈 김지수 김홍업 김홍수 남영혜 류재중
 문양로 문영국 박경란 박도신 박범창 박영칠 박희인 서영완 서영희 소종영 손용감 송관욱
 송신근 송원준 송인준 송태현 신성정 신현정 심유리 엄기문 엄자옥 오광영 오명세 오은아
 원용철 원용호 유성호 유영민 유요열 유윤우 유장환 유종철 윤병민 윤상렬 이경아 이기홍
 이미옥 이번영 이요한 이종명 이지연 이진규 이창복 이춘자 이화자 임수규 임재현 장도정
 장인백 전기룡 전은경 정성삼 정순희 정태순 정하진 정한섭 조부활 조성균 조성미 조주형
 최만정 최정임 추교화 하일청 한동화 허민정

[7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대훈 강선호 고양우 고준택 권선필 권선혜 권 인 김기수
 김미경 김미옥 김영석 김재봉 김제선 김종필 김지수 김홍업 김홍수 남영혜 류재중 문양로
 문영국 박경란 박도신 박범창 박영칠 박희인 서영완 서영희 손용감 송관욱 송신근 송원준
 송인준 송태현 신성정 신현정 심유리 엄기문 엄자옥 오광영 오명세 오은아 원용철 원용호
 유영민 유요열 유윤우 유장환 유종철 윤병민 윤상렬 윤해경 이기홍 이미옥 이번영 이요한
 이종명 이지연 이진규 이창복 이춘자 이화자 임수규 임재현 장인백 전기룡 전은경 정성삼
 정순희 정태순 정하진 정한섭 조부활 조성균 조성미 조주형 최만정 최정임 추교화 하일청
 한동화 허민정

전북평통사

[6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권선희 김대송 김동학 김명근 김미경 김순희 김아영 김종혁
 김형근 라귀인 박영천 박용호 박은경 박채운 박충례 방용승 서현선 신용우 신현옥 안경숙
 양재석 양정순 양종진 양지연 오기주 오인빈 오창규 유은선 유희탁 이경진 이규태 이금림
 이명자 이병기 이병주 이세우 이수정 이용숙 이장우 이정현 이진규 이현수 임재완 장수나
 장완수 전병생 전용균 전호일 전호정 정운승 정용용 정은주 정창완 정태웅 조광범 조광수
 조성숙 채운석 최민옥 최성웅 최수경 최희숙 허자영 허정길 현주억 황영하 황인철

[7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권선희 김동학 김명근 김미경 김순희 김아영 김종혁 라귀인
 박영천 박용호 박은경 박채운 박충례 방용승 서현선 신범석 신용우 안경숙 양재석 양정순
 양종진 양지연 오기주 오인빈 오창규 유은선 유희탁 이규태 이금림 이명자 이병기 이병식
 이병주 이성교 이세우 이수정 이수정 이용숙 이장우 이정현 이종구 이진규 이현수 이현수
 임재완 장수나 장완수 전용균 전호일 전호정 정운승 정용용 정은주 정창완 정태웅 조광범
 조성숙 조수미 최민옥 최성웅 최수경 최인자 최희숙 허자영 허정길 현주억 황영하 황인철

군산평통사

[6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경수 김도걸 김미주 김 삼 김성훈 김연태 김인수 김준근
김진호 김판태 김효성 남현욱 노승민 문규옥 문성주 문영용 박미라 박종문 서동완 선진숙
송상구 신수철 엄미숙 여성구 우훈식 유승기 유재임 유하영 윤철수 이상호 이성원 임보영
임춘희 전재현 전해숙 정건희 정병휴 조성옥 조판철 최대준 최영목 최응진 최재석 홍경갑
황남인 황현정 황두만

[7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경수 김도걸 김미주 김 삼 김성훈 김연태 김인수 김준근
김진호 김판태 김효성 노승민 문규옥 문성주 문영용 박미라 박영희 박종대 박종문 서동완
선진숙 송상구 신수철 엄미숙 여성구 우훈식 유승기 유재임 유하영 윤철수 이상호 이성원
임보영 임춘희 전재현 전해숙 정건희 정병휴 조성옥 조판철 최대준 최영목 최응진 최재석
홍경갑 황현정 황두만

광주전남평통사

[6·7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고희문 김경태 김관주 김기수 김미경 김병기 김병모
김병태 김수미 김순종 김승환 김영식 김영식 김용성 김은곤 김은숙 김인숙 김태옥 김 현
김희용 남부원 노준복 리 익 모영현 문유신 박규상 박상재 박석면 박석환 박승규 박승옥
박영배 박종주 박종찬 배영일 배종렬 백은경 서창호 송경희 안성례 안희만 양덕준 엄영애
오근선 오승주 유진이 윤영식 윤종순 이광철 이대준 이돈기 이보영 이영선 이윤옥 이인수
이재균 이재창 이철우 이태석 이향재 이희수 임현삼 장관철 전경일 전영남 정길주 정동석
정유철 정종득 정동석 정영달 정중석 정찬록 정희익 주근호 채일손 최병상 최종률 최진연
최창현 한강희 홍용식 무등교회 큰사랑교회 민들레교회 무진교회

안동평통사

[6월 회원회비] 강민석 강석주 권기찬 권영숙 권정애 권주원 김금희 김영애 김옥희 김
인숙 김정석 김정희 김주철 김지섭 김창환 김판갑 김현택 김현숙 박무식 박용제 박종규 박
화무 배오직 배용한 오덕훈 우성섭 유춘우 윤지홍 이규중 이천우 이형창 장호철 정복순 정
철환 조선아 최난희 최윤환 최형석 피재현 한철희

[7월 회원회비] 강민석 강석주 권기찬 권영숙 권정애 권주원 김금희 김영애 김옥희 김
인숙 김정석 김정희 김주철 김지섭 김창환 김판갑 김현택 김현숙 박무식 박용제 박종규 박
화무 배오직 배용한 우성섭 유춘우 윤지홍 이규중 이천우 이형창 장호철 정복순 정철환 조
선아 최난희 최윤환 최형석 피재현 한철희

대구평통사 준비위원회(CMS회원만)

[6월] 고경수 박성민 박순종 배찬호 이영훈 전창훈 허정호

[7월] 고경수 김남경 박문수 박성민 박순중 배찬호 이영훈 전창훈 허정호

부산경남 지역회원

[6·7월] 김건우 류종현

경기북부 지역회원

[6·7월] 김일권 주병준

평화통일연구소

[6월 이사회비] 김경호 홍영진

[6월 후원회비] 강진희 고효완 김기오 김창범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성경숙 이범준 이선
엽 이왕재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7월 이사회비] 김경호 홍영진

[7월 후원회비] 강진희 고효완 김기오 김창범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성경숙 이범준 이선
엽 이왕재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 관련 문의는 지역 평통사 사무국이나 중앙 총무국에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 평통사 회비
납부 계좌는 맨 뒷면을 참고하세요.

* 6, 7월 납부 명단이 함께 실리는 관계로 양이 많습니다. 양해바랍니다.